

#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의 著者에 關한 考察

|                                       |     |
|---------------------------------------|-----|
| I. 緒論 .....                           | 170 |
| II. 本論 .....                          | 172 |
| 1. 문제의 발단 .....                       | 172 |
| 1) 《保命集》의 著者에 關한 논쟁의 考察 .....         | 172 |
| (1) 《保命集》이 張元素의 著作이라는 주장 .....        | 172 |
| (2) 《保命集》이 劉完素의 著作이라는 주장 .....        | 173 |
| (3) 《保命集》이 後人의 編輯이라는 견해 .....         | 176 |
| 2) 《保命集》의 著者에 關한 세 가지 견해의 문제점 .....   | 176 |
| (1) 《保命集》이 張元素의 著作이라는 주장의 문제점 ...     | 176 |
| (2) 《保命集》이 劉完素의 著作이라는 주장의 문제점 ...     | 178 |
| (3) 《保命集》이 後人의 編輯이라는 주장의 문제점 ...      | 178 |
| 3) 《保命集》과 《活法機要》의 關係에 對한 考察 .....     | 179 |
| (1) 《活法機要》의 著作者와 著作時期 .....           | 179 |
| (2) 《保命集》과 比較를 통한 《活法機要》의 내용 考察 ..... | 181 |
| 2. 《保命集》의 내용을 통한 考察 .....             | 182 |
| 1) 〈病機論 第七〉의 考察 .....                 | 182 |
| (1) 五運主病 .....                        | 182 |
| (2) 六氣爲病 .....                        | 185 |
| (3) 〈病機論 第七〉의 종합 .....                | 187 |
| 2) 〈傷寒論 第六〉의 내용 考察 .....              | 188 |
| (1) 傷寒病에 關하여 .....                    | 188 |
| (2) 傷寒病의 治法 .....                     | 189 |
| (3) 〈傷寒論 第六〉의 종합 .....                | 190 |
| 3) 《保命集》 〈本草論 第九〉, 〈藥略 第三十二〉의 考察 ...  | 192 |
| (1) 《保命集》 〈本草論 第九〉의 考察 .....          | 192 |
| (2) 〈藥略 第三十二〉의 考察 .....               | 193 |
| (3) 〈本草論 第九〉과 〈藥略 第三十二〉의 종합 ...       | 194 |
| 4) 여러 病證論에 對한 고찰 .....                | 195 |
| (1) 〈中風論 第十〉의 考察 .....                | 195 |
| (2) 〈熱論 第十四〉의 考察 .....                | 196 |
| (3) 病證論의 종합 .....                     | 197 |
| III. 考察 및 結論 .....                    | 198 |
| IV. 參考文獻 .....                        | 200 |
| ABSTRACT .....                        | 201 |

##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의 著者에 關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趙大震·朴贊國

### 1. 緒論

金元時代に 이르러 學派가 형성되면서 각 學派 間에 독창적인 이론을 세우고, 그것을 깊이 연구 하여 醫學理論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洪元植은 이러한 情狀을,

金元時代に 이르러 理論研究의 상당한 발전에 부응하여, 基本理論에 대해 새로운 研究가 시도되었는데, 金元時代 醫學流派의 出現은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들의 基本理論 탐구는 臨床으로부터 출발하여 疾病發生과 變化의 規律를 추구하였는데, 특히 病機와 관계있는 病理學說 方面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研究方法는 개인의 관찰과 경험에 근거해서 역추한 것이므로, 각자의 臨床體驗이 不同하고, 觀點이 不同한데다, 理論의 수용과정에서 주관화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이것이 醫學流派의 出現에 중요한 要因이 된다.<sup>1)</sup>

라고 하여, 당시의 학술풍토는 基本理論 특히, 病機와 관계있는 病理學說에 대한 研究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基礎理論의 연구과정에서 각자의 臨床體驗과 觀點이 다른가닭에 理論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 學派가 出現하게 되었다고 설명하

고 있다.

또한, 김용진은 그의 논문에서,

金元代에 이르러 잦은 戰爭과 傳染病의 流行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疾病으로 고생하여 새로운 醫學理論 및 醫術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醫學理論인 脾胃論, 亢害承制論, 相火說, 古今異軌說, 歸經論, 引經報使說, 六淫病機學說, 藏府病機學說 등이 새롭게 발전, 고안되어 金元時代 醫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河間學派와 易水學派로 대표될 수 있는 金元四大家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河間學派는 劉完素를 대표로 하여 六淫中 火熱病의 病機와 治療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學派로 後世에 功下派, 滋陰派, 溫熱學派 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易水學派는 張元素를 대표로 藏府證候의 病機와 治療을 研究하는 學派로 後世 補土派, 溫補學派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金元時代의 醫學은 張機의 傷寒論 이후 東洋醫學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여 明清代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sup>2)</sup>

라고 하여, 金元代 새로운 醫學理論이 등장하

1) 洪元植 :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193쪽.

2) 金容辰·尹暢烈 : 張元素의 生涯와 醫學思想,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 4, 1990, 129쪽.

게 된 원인과 발전현황 및 후세에 미친 영향을 개괄하고 있다.

이와같이 金元代에 基本理論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醫學理論이 등장하여 明代와 清代 그리고 朝鮮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醫學發展을 주도한 사람들이 河間學派와 易水學派로 대두되는 金元四大家 등이며, 그 중에 劉完素와 張元素는 두 學派의 宗主로서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劉完素는 河間人으로 字는 守眞이고 自號를 通玄處士라 했다. 대략 北宋 大觀四年(서기 1110년)에 태어났으며<sup>3)</sup>, 著書로는 《素問玄機原病式》, 《素問宣明論方》, 《素問病機氣宜保命集》 등이 있다<sup>4)</sup>. 그는 六經病機, 특히 火와 熱의 病機에 대하여 발전된 새로운 學說을 정립하고, 그 이론에 따라 寒涼한 약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여 寒涼派라고도 불린다.

張元素는 金의 易州人으로 字는 潔古이다. 그의 生死年月은 不詳이나<sup>5)</sup>, 대략 劉完素와 동시대

인이며, 著書로는 《醫學啓源》, 《珍珠囊》, 《藥注難經》 및 《醫方》 30권이 있다. 《醫方》은 전해지지 않고, 《藥注難經》은 後人의 僞作이라 한다.<sup>6)</sup> 그는 藏府病機學說을 體系化하고, 그 理論에 따른 藥物의 연구를 통하여 歸經說, 引經說 등 새로운 理論을 주창함으로써 藏府病機 뿐만 아니라 本草와 方劑方面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본 論考는 일반적으로 劉完素의 著書로 알려져 있는 《素問病機氣宜保命集》<sup>7)</sup>에 대한 考察이다. 《保命集》의 著者에 관하여 크게 세가지의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는 劉完素의 著作이라는 견해이고, 둘째는 張元素의 著作이라는 견해이며, 셋째는 後人이 두 인물의 遺作을 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는 견해이다.

《保命集》이라는 책의 著者에 관하여 이와 같이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것, 특히 그 著者로서 거론되는 인물이 金元代 河間學派와 易水學派의 宗主로서 서로 다른 醫學理論을 주창하여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劉完素와 張元素라는 것이 매우 흥미를 끈다.

이에 본인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발단과 그 이후의 여러 논쟁을 검토하고, 《保命集》의 몇 편의 내용을 통하여 과연 《保命集》의 著者가 누구인가를 考察하여 보았다. 이러한 考察을 통하여 金元時代에 學派를 형성하여 의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두 인물인 劉完素와 張元素의 醫學思想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의학이 발전해가는 면모를 살

3) 李總甫·劉炳凡 :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之研究, 人民衛生出版社, 1983, 1쪽.

4) 李總甫, 劉炳凡 : 앞의 책, 1쪽.

5) 中華醫史雜誌 1993년 제 23권 제 3기, 176쪽.

中華醫史雜誌의 「張元素生年小考」에는 白茅가 [任翼. 遼寧中醫雜誌 1993; 20 (2) : 23]의 논문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金史·選舉志》의 史料와 《金史·方技傳》에 張元素에 대하여 “八世試童子舉, 二七試經義進士”라고 한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張元素가 童子舉에 응시한 것은 1136-1149년 사이거나 혹은 1190년의 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經義進士에 응시한 것은 1123-1151년 사이거나 1150년 혹은 1180년 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張元素와 劉完素가 한 시대에 속하나 조금 늦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몇 가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金史·選舉志》중에는 正隆元年(1156)에 과거가 있었으나 그 전후에는 과거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때가 張元素가 進士에 응시한 연도(곧 27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그 生年은 金 太宗 天會八年(1130)임을 알 수 있다.

6) 洪元植 : 앞의 책, 212쪽.

7) 간칭하여 《保命集》이라고도 한다. 아래에는 모두 《保命集》이라고 기재하며, 참고한 書籍은 (四庫全書 醫家類 13, 大星文化社, 1995)이다.

필 수 있으며, 醫學史 書籍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保命集》의 著者에 관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 II. 本論

### 1. 문제의 발단

#### 1) 《保命集》의 著者에 관한 논쟁의 考察

李時珍이 지은 《本草綱目》은 모두 52卷으로 되어 있는데, 제 1-2卷은 序例로서 七方, 十劑, 氣味, 陰陽, 升降浮沈, 臟腑標本用藥式 및 相須, 相使, 相畏, 相惡, 相反諸藥, 用藥禁忌, 諸家用藥凡例 등을 포괄하여 총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sup>8)</sup>.一卷의 「歷代諸家本草」에서는 歷代의 本草著作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특히, 張元素의 《潔古珍珠囊》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保命集》을 張元素가 지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후대에 《保命集》의 著者에 관한 논란을 일으켰다. 후대의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劉完素의 著作이 아니라 張元素의 著作이라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劉完素의 著作이 틀림없다는 주장이며, 세 번째는 후대에 張元素와 劉完素가 아닌 제 3의 인물이 두 인물의 遺作을 모아서 한 권으로 편찬하였다는 주장이다.

여기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주장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8) 洪元植 : 앞의 책, 250쪽.

#### (1) 《保命集》이 張元素의 著作이라는 주장

우선 《保命集》이 張元素의 著作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李時珍은 《本草綱目·序例》에서,

또한 病機氣宜保命集 四卷을 지었으니, 이것을一名 活法機要라고 한다. 후인들이 河間 劉完素가 지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거짓으로 序文을 지어 억지로 끌어다가 앞에 두었다. 기타 潔古의 많은 서적은 대부분 후인들이 依託하였으므로 그 論旨가 粗雜하여 논리정연하지 않다.<sup>9)</sup>

라고 하여, 《保命集》을 張元素가 지은 책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保命集》을一名 《活法機要》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清代에 간행된 四庫全書의 《保命集·提要》에서는,

臣 등이 삼가 保命集 三卷을 살펴보니, 金代의 張元素가 撰한 것입니다...(중략)... 이 책은 처음에는 전하여지지 않다가 金末에 楊威가 처음으로 판본을 얻어 刊行하면서 河間 劉完素가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明初에 寧王 權이 다시 간행하면서 거듭 그 잘못을 답습하여 거짓으로 서문을 지어 억지로 끌어다가 책의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李時珍이 本草綱目을 지어 비로소 그 잘못됨을 규명하여 張元素가 지었다고 바로잡았으니 本草綱目的 序例中에서 상세하게 변별하였습니다. 李濂의 醫史를 살펴보면...(중략)... 그 의학의 造詣가 深遠하여 족히 스스로 一家를 이룰만하여

9) “又著病機氣宜保命集 四卷 一名 活法機要. 後人誤作 河間劉完素所著 僞撰序文詞 調于卷首 以附會之. 其他潔古諸書多是後人依託 故駁雜不倫.” 四庫全書 本草綱目, 大星文化社, 1995. 314쪽.

본디 完素를 依託하여 重하게 여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특별히 그 잘못된 점을 고쳐 바로잡고, 그 거짓으로 지은 序文은 아울러 삭제하였습니다.<sup>10)</sup>

라고 하여, 四庫全書의 《保命集·提要》에서 《保命集》이 劉完素의 著作이라고 잘못 알려진 것이라 생각하여 그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즉, 《保命集》이 전하여지지 않다가 金末에 楊威가 처음으로 版本을 얻어 刊行하였는데, 楊威는 《保命集》을 刊行하면서 잘못 생각하여 劉完素가 지었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明初에 朱權이 다시 刊行하면서 楊威의 생각을 좇아 劉完素가 지었다는 잘못을 답습하였고, 심지어 劉完素의 自序를 거짓으로 지어 책의 앞에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을 李時珍이 비로소 바로 잡았으며, 또한, 李濂의 《醫史》를 인용하면서 張元素의 醫學思想이 劉完素의 醫學思想보다 결코 뒤진 것이 아니라고 楊威의 잘못을 傍證함으로써 《保命集》을 劉完素가 지은 것이 아니라 張元素가 지었다는 근거로 삼았다.

## (2) 《保命集》이 劉完素의 著作이라는 주장

그러나, 후대에 丹波元胤과 李聰甫·劉炳凡 및 嚴世蕃 등은 張元素의 著作이라는 李時珍과 《四庫全書·保命集提要》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

保命集》이 劉完素의 著作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丹波元胤은 그의 《中國醫籍考》에서,

살펴보건대, 線溪野老가 쓴 劉守眞 三消論의跋에 말하기를, 麻徵君이 汴梁에 머무르던 어느날에 先生의 後裔를 방문하였는데, 그 집에서 三消論과 氣宜病機의 책을 얻었다고 하였고, 또한 杜思敬은 濟生拔粹에서 東垣의 活法機要와 潔古家珍과 劉守眞의 保命集은 大同小異하다 하였다…(중략)…杜思敬이 濟生拔粹를 編할 때는 元의 延祐二年으로 八十一歲때이니 守眞선생이 살던 때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이 책을 守眞이 지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중에서 기술한 方論이 宣明論이나 原病式과 서로 出入하여 상통하니, 李時珍이 무슨 근거로 張元素의 책이라 주장하는가? 무릇 元素가 지은 책들이 비록 유실되어 볼 수는 없으나, 東垣 李明之가 일찍이 그의 法을 전수받았으니 李東垣의 여러 책을 읽어보아 그 근원을 거슬러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이치와 강조하는 바가 이 책과는 완전히 다르다. 元素의 아들인 張璧이 保命集論類要를 지었으니, 어찌 李時珍이 이 책과 혼동한 것이 아니겠는가? …(중략)…李時珍은 李東垣이 지은 活法機要를 보명집의 또다른 이름이라 하여 거듭 작은 실수를 하였다.<sup>11)</sup>

11) 丹波元胤：中國醫籍考，人民衛生出版社，1983. 654쪽.

“按線溪野老 劉守眞三消論跋云 麻徵君寓汴梁日 訪先生後裔 就其家 得三消論氣宜病機之書 又杜思敬濟生拔粹 稱東垣活法機要 與潔古家珍 及劉守眞保命 大同小異 考徵君則麻九疇 爲張子和友 乃在當時 其言若此 與楊序所謂先生卒 書不世傳 屏翳於荊棘荆棘中者符 杜思敬編書 在于元延祐二年 是八十一歲 其生距守眞之時 未爲遠闊 則是書之出自守眞 斷可知矣. 且其所述方論 與宣明論 原病式 相出入 李時珍有何所證 以爲張元素之書? 夫元素所著 雖佚不可見 東垣李明之 嘗從受其法 則讀明之諸書 以溯源委 其理趣判然 與是書不同 元素子

10) “臣等謹按 保命集 三卷 金張元素撰…(중략)…至其書 初罕傳播 金末 楊威 始得其本 刊行之 而題爲河間劉完素所著 明初 寧王權重刊 亦沿其誤 并僞撰完素序文詞 調於卷首 以附會之 至李時珍 作本草綱目 始糾其謬 而定爲出於元素之手 於序例中 辨之甚明 考李濂醫史 稱完素 嘗病傷寒八日 頭痛脈緊 嘔逆不食 元素往候 令服某藥 完素大服 如其言遂愈 元素自此顯名 是其造詣深遠 足以自成一家 原不必託完素 以爲重 今特爲改正 其僞託之序 亦并從刪削焉.”

(四庫全書，保命集提要，大星文化社，1995. 1-2쪽.)

라고 하여, 張從正의 벗인 麻徵君이 劉完素 後孫의 집에서 《三消論》과 《氣宜病機》를 얻었다고 한점, 劉完素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 杜思敬이 《濟生拔粹》에서 《活法機要》에 대하여 李東垣이 지었으며, 《潔古家珍》 및 劉完素의 《保命集》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여 《保命集》을 劉完素가 지었다고 언급한 점, 《保命集》의 내용이 《原病式》이나 《宣明論方》과 일맥 상통한다는 점, 李時珍은 張元素의 아들인 張璧이 지은 《傷寒保命集論類要》의 保命集과 착각하였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杜思敬이 말했듯이 《活法機要》는 李東垣이 지은 것이며 《保命集》의 다른 이름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하여 劉完素의 著作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 李聰甫·劉炳凡은 《金元四大家學術思想研究》에서 역대 서적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또한 《保命集》의 내용을 비교·考察하여 《保命集》의 著者가 劉完素임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역대 서적의 내용을 통하여 考察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李時珍은 《保命集》을 一名 《活法機要》라고 하였는데, 《活法機要》는 一卷이므로 上中下 三卷인 《保命集》과는 다르고,

둘째, 《保命集》의 著者는 劉完素라는 丹波元胤의 주장과 劉完素가 만년에 《素問病機氣宜保命集》 三卷 三十二門을 著述하였다는 李濂의 記述이 일치하며,

셋째, 《醫學啓源》의 序文에서 張吉甫는 張元素의 著作을 소개하면서 《保命集》은 언급하지

壁 著有保命集論類要 時珍豈非以此 相混者耶? 提要未察此義 隨襲其謬 併以序文詞 稱寧王偽撰 郭書燕說 莫甚此焉. 活法機要 爲李明之所著 時珍又爲是書一名 實爲歧誤.”

않았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劉完素가 《保命集》을 지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다.<sup>12)</sup>

그리고, 《保命集》의 내용을 비교·考察하여 위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本書의 中, 下卷의 二十二篇은 여러 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十九篇은 《濟生拔粹》본의 《潔古家珍》이나 《活法機要》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같다. 이러한 까닭은 《潔古家珍》과 《活法機要》가 《濟生拔粹》를 편집한 杜思敬의 손을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中風을 예로 들면, 《家珍》에 있는 일곱 개의 處方은 전부 本書에 있는 열 개의 處方중에 있으나, 完素의 著作인 《宣明論方·風論》의 스물네개 處方중에 防風通聖散을 제외하고는 本書와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宣明論方·風論》의 論술내용은 中風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며, 《宣明論方》은 完素가 早期에 著作하였고 本書는 晚期에 著作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早晩年에 사용한 處方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完素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雙解散과 通聖散 등 辛涼한 味の 處方을 만든 것은 仲景이 제시한 桂枝湯, 麻黃湯 등의 發表시키는 藥을 사용하는 法을 따르지 않았으니,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때와 그 때에 五運六氣가 바뀌고, 世態의 뜨겁고 서늘함이 變하였다(《保命集·傷寒論第六》)”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논점은 《原病式》과 서로 부합된다. 그리고, 《保命集》中の〈原道〉, 〈陰陽〉, 〈本草〉, 〈攝生〉은 모두 《

12) 李聰甫·劉炳凡: 앞의 책, 2쪽.

內經》을 根本으로 하였고, 그 中에서 특히 '病機十九條'는 王冰의 注를 많이 인용하였으며, 그 理論도 《原病式》과 서로 같다. 이것으로 본다면 本書에 劉完素와 張元素 두 醫家의 處方과 理論이 섞여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이상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完素와 元素는 同時代를 살았으며 두 사람은 서로 交流하였다... (중략)... 元素가 "運氣는 고르지 않아 예와 지금은 軌道를 달리한다"라고 한 것이나 熱性病에 대처하기 위하여 스스로 새로운 處方을 만든 것 등은 모두 河間의 法을 취한 것이다... (중략)...

특히, 一卷의 〈原道 第一〉의 "精神生于道者也", "夫道者 能却老而全形", "守眞之士 法于陰陽 和于術數", "專氣包一 以神爲車 以氣爲馬 神氣相合 可以長生" ... (중략) ... 등의 논점은 모두 道家思想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들과 完素의 평소 신앙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왜냐하면 劉完素는 自號를 通玄處士라 하고, 字를 守眞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却老而全形'의 설과 《原病式》의 '老年病論'은 서로 상응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保命集》의 주요 논술은 河間에게서 나온 것이며, 丹波元胤 등의 의견에 더욱 수긍할 수밖에 없다.<sup>13)</sup>

라고 하여, 《保命集》의 中風을 예로 그 내용이 《潔古家珍》이나 《活法機要》와 대부분 유사한 반면, 劉完素의 著作인 《宣明論方》과는 전혀 다른데, 그 까닭이 《宣明論方》은 著作時期가 이르고, 《保命集》은 晩年에 저술하여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조금 늦게 쓰인 《保命集》과 사용하는 處方이 그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保命集》의 〈傷寒論第六〉에 劉完素가 創方했다

고 알려진 '雙解散'이나 '防風通聖散'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記述이 있고, 기타의 여러 편에서 《內經》에 근본을 둔 점, 특히 病機論의 '病機十九條'에 관한 설명이 王冰의 注를 많이 인용하고, 또한 설명방식과 내용이 《原病式》과 서로 부합하는 것을 근거로 《保命集》에 있는 醫學思想은 劉完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保命集》에 실제로 劉完素와 張元素 두 인물의 醫學理論이나 處方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서로 섞여 있는 사실에 대하여, 두 사람의 교류와 상호영향, 특히 張元素가 劉完素에게 받은 많은 영향 때문에 두 인물의 醫學思想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는 劉完素의 自號가 通玄處士이고, 字가 守眞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劉完素가 道家思想에 심취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道家思想은 《保命集》의 여러편에서 보이며, 특히 〈原道第一〉의 내용은 《原病式》의 '老年病論'과 일맥상통하는 점으로 미루어 《保命集》은 劉完素에게서 나왔다고 하였으며, 劉完素의 著作이라고 주장하는 丹波元胤 등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嚴世堯 등은 《中國醫籍通考》에서 《保命集》에 대하여,

이 책은 河間이 撰한 것으로 晩年에 마음을 다하여 著作한 것이며, 大定 丙午年에 自序를 지었다 ... 후에 楊威가 天興末에 太醫 王卿의 先家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 守眞과의 거리가 겨우 삼십여년이니 거짓일 리가 없다... 明代 李時珍에 이르러 비로소 張元素의 책이라고 단정하고, 후인이 河間 劉完素의 著作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거짓으로 序文을 짓고 劉完素가 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를 알 수가 없다... 易水와 河間이 비

13) 李總甫, 劉炳凡: 앞의 책, 3쪽.

록 同時代를 살고 서로 알고 지냈다고는 하지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또한 각자의 學問의 成就를 이루어 後世에 서로 다른 學派의 宗主가 되었으니 과연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本書와 劉氏가 지은 《原病式》, 《三消論》 등과 서로 비교해보면 醫理가 서로 부합되고 일관되어 張氏의 學問, 經驗과는 그 뜻하는 바가 자못 다르다.<sup>14)</sup>

라고 하여, 大定 丙午年인 1186년에 劉完素가 自序를 썼으며, 楊威가 《保命集》을 얻은 것이 天興末인 1234년 경이므로 劉完素가 살던 때와 불과 삼십여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楊威가 착각을 일으킬 리가 없다는 점과 李時珍이 아무런 근거없이 《保命集》의 著者가 張元素라고 한점, 그리고 《保命集》의 내용이 劉完素의 著作인 《原病式》이나 《三消論》 등과는 醫理가 一貫되나 張元素의 醫學思想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劉完素의 著作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保命集》이 後人의 編輯이라는 견해

위의 상반된 두 주장에 대하여 《中醫學術史》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 劉完素의 著作 중 《保命集》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 관하여 李時珍은 《本草綱目·序例》에서 《活法機要》라고 명칭하고, 張潔古의 著作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後人이 劉完素와 張元素 두 醫家의 遺書를 編輯하여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sup>15)</sup>

14) 嚴世蓼：中國醫籍通考(第一卷)，上海中醫學院出版社，1990，中國，58-59쪽.

15) 嚴世蓼 主編：中醫學術史，一中社，1991年 影印本，252쪽.

完素와 元素는 同時代를 살았으며, 두 인물은 서로 往來하며 交際하였다. 《金史》의 내용에 근거하면, 完素가 傷寒病을 앓을 때에 元素가 問病을 가서, 診脈하여 處方을 내려 完素의 신임과 찬양을 받았다. 張元素의 醫學思想은 어느 정도 劉完素의 영향을 받았다. “運氣는 고르지 않아 예와 지금은 軌道를 달리한다”라고 한 것이나 熱病에 대처하기 위하여 스스로 새로운 處方을 만든 것 등은 모두 河間의 法을 취한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完素가 火의 病因을 重視한 반면 元素는 氣의 病因을 重視하였고, 完素가 處方의 選擇을 重視한 반면, 元素는 藥物의 選擇을 重視한 데에 불과하다.<sup>16)</sup>

라고 하여, 劉完素와 張元素는 學問의 交流하였으며, 특히 張元素가 劉完素의 學術思想에 많은 영향을 받아 그의 醫學思想을 이루어 두 인물의 醫學思想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後人이 두 인물의 遺書를 모아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 2) 《保命集》의 著者에 관한 세 가지 견해의 문제점

위에서 《保命集》의 著者에 관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데, 각각의 근거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 여기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 (1) 《保命集》이 張元素의 著作이라는 주장의 문제점

16) 嚴世蓼 主編：앞의 책，252쪽.

이 내용은 《金元四大家學術思想研究》中 ‘《素問病機氣宜保命集》考’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우선 《保命集》이 張元素의 著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四庫全書의 《保命集·提要》에서는 《保命集》을 張元素가 지은 것이라고 하면서 李時珍이 《本草綱目·序例》에서 잘 밝혀 놓았다고 하였는데, 《保命集》이 張元素의 著作이라고 하는 李時珍의 주장에는 몇가지 의문점들이 있다. 첫째,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保命集》을 張元素가 지었다고 한 점, 둘째, 《保命集》이 四卷이라고 한 점, 셋째, 《保命集》을 一名 《活法機要》라고 한 점, 넷째, 《本草綱目·序例》중에서 「七方」과 「十劑」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劉完素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인용하였는가 하는 점 등이다.

먼저, 李時珍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保命集》을 張元素가 지었다고 하였는데,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다만 李時珍은 《潔古珍珠囊》을 설명하면서 張元素에 대하여 “크게 醫學理論을 펼친 이는 靈樞와 素問이래 오직 이 한사람 뿐이다.”<sup>17)</sup>라고 극찬을 한 것으로 보아 張元素의 醫學理論에 깊이 감복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保命集》에서 읽은 것이 아닌가 생각될 뿐이다.

둘째, 《保命集》이 四卷이라고 하였는데, 현존하는 《保命集》은 三卷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다. 李時珍이 보았던 《保命集》과 현존하는 《保命集》이 다른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李時珍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保命集》을 一名 《活法機要》라고 하였는데, 《活法機要》라고 하는 책이 따로 현존하고 있어서<sup>18)</sup> 과연 《活法機要》가 《保命集》의

이명이었는지 의심스럽다. 丹波元胤과 李聰甫 등은 《活法機要》가 一卷이라는 것을 근거로 李時珍의 설을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丹波元胤은 《活法機要》에 대하여 杜思敬이 제생발수에서 말한 이동원의 찬이라는 것을 근거로 《保命集》과 《活法機要》는 다른 책이므로 李時珍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였다.

넷째, 李時珍은 《本草綱目·序例》中에서 七方과 十劑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劉完素의 말을 인용하였는데<sup>19)</sup>, 七方과 十劑에 관한 내용은 劉完素가 지은 《原病式》이나 《宣明論方》 등 다른 著作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保命集》의 〈本草

機要), 上海三聯書店, 1990, 中國. 이 책은 朱震亨이 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濟生拔粹》本을 그대로 실었다.

2. 李杲 撰: 珍本醫籍總刊(醫學發明·活法機要), 中醫古籍出版社, 1987, 中國. 醫聖堂 影印本. 이 책은 李東垣이 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濟生拔粹》本과 《醫統正脈全書》本을 참조하고 後代의 醫書를 통해 校訂하고 보충하였다.

19) 《本草綱目》에서 劉完素의 말을 인용한 문구는 아래와 같다.

“完素曰 流變在乎病 主病在乎方 制方在乎人 方有七 大小緩急奇偶復也 制方之體 本乎氣味 寒熱溫涼 四氣生于天 酸苦甘辛鹹淡 六味成于地 是以有形爲味 無形爲氣 氣爲陽 味爲陰 辛甘發散爲陽 酸苦滯滯爲陰 鹹味滯滯爲陰 淡味滯滯爲陽 或收 或散 或緩 或急 或燥 或潤 或緩 或緩 各隨臟腑之證 而施藥之品味 乃分七方之制也 故奇偶復者 三方也 大小緩急者 四制之法也 故曰 治有緩急 方有大小, …… 完素曰 身表爲遠 裏爲近 大小者 制奇偶之法也 假如 小承氣湯 調胃承氣湯 寄之小方也 大承氣湯 抵當湯 寄之大方也 所謂 因其攻裏 而用之也 桂枝麻黃 偶之小方也 葛根青龍 偶之大方也 所謂因其發表 而用之也 故曰 汗不以寄 下不以偶, …”(李時珍: 앞의 책, 342 - 343쪽.)

“…完素曰 鬱而不散爲壅 必宜以散之 如痞滿不通之類 是矣 攻其裏則 宣者上也 泄者下也 涌劑側 瓜蒂梔子之屬 是矣 發汗解表亦同……完素曰 留而不行 必通以行之 如水病爲痰癖之類 以木通防己之屬 攻其內則 留者行也 滑石茯苓芫花甘遂大戟牽牛之類 是也…”(四庫全書 本草綱目, p.p. 348, 349.)

이상의 七方과 十劑 및 기타 本草理論에 관한 설명은 모두 《保命集》의 〈本草論 第九〉에 보이는 내용이다. 《保命集》과 한두 글자 다른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옮기는 과정에서 李時珍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17) 李時珍: 앞의 책, 314쪽.

18) 《活法機要》는 元代의 《濟生拔粹》本과 明代의 《醫統正脈全書》本이 있으며, 單行本으로는 아래의 책들이 있다.

1.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十五(活法

論 第九〉에 인용한 내용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아, 李時珍이 《保命集》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李時珍은 《保命集》의 글을 인용하여 劉完素가 말하였다고 하면서도 張元素가 《保命集》을 지었다고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本草綱目·序例》에서 《保命集》이 張元素의 著作이라고 한 李時珍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四庫全書의 《保命集·提要》에서는 楊威가 《保命集》을 劉完素의 著作이라고 잘못 전한 것으로부터 《保命集》의 著者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명확치 않고, 또한 이 말은 앞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李時珍의 주장을 옳다고 생각한 바탕위에서 제시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 (2) 《保命集》이 劉完素의 著作이라는 주장의 문제점

《保命集》이 劉完素의 著作이라는 주장은 몇 가지로 요약되는데,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三消論》의 跋文을 인용하여 麻徵君이 劉完素의 後裔에게서 《三消論》과 《病機氣宜》를 얻었다는 것인데, 이중에 《三消論》은 劉完素의 著作임이 의심받고 있으므로 《病機氣宜》가 《保命集》을 가리킨다고 해도 劉完素의 著作이라는 것은 의심스럽다.<sup>20)</sup>

둘째, 楊威가 天興末에 전해지지 않던 《保命

集》을 보았을 때와 劉完素가 살던 때와의 차이가 삼십여년 밖에 되지 않으므로 楊威의 주장을 믿을 만하다는 것인데, 四庫全書의 《保命集·提要》에서 밝힌 대로 楊威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셋째, 杜思敬이 《濟生拔粹》의 《活法機要》에서 “東垣의 《活法機要》와 《潔古家珍》과 劉守眞의 《保命集》은 大同小異하다”<sup>21)</sup>라는 언급을 근거로, 杜思敬과 劉守眞과는 시대적으로 멀지 않으므로 杜思敬의 말을 믿을 만하다는 것인데, 杜思敬은 楊威보다 후대의 사람이므로 楊威가 重刊한 《保命集》을 보았을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두 번째에서 밝혔듯이 楊威가 잘못 생각한 것을 그대로 따랐을 수도 있다.

넷째, 李時珍이 《保命集》을 一名 《活法機要》라고도 한다는 설에 대하여 현재 《活法機要》一卷이 존재하므로 李時珍이 틀렸다는 것과, 《保命集》 내용중 일부분을 예로 들어 그 내용이 《原病式》, 《宣明方論》, 《三消論》 등에 있는 劉完素의 醫學思想과 일치하므로 劉完素의 著作이라는 것인데, 〈中風論 第十〉과 같이 《宣明方論》의 내용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하여야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 《保命集》이 後人の 編輯이라는 주장의 문제점

《保命集》이 後人の 編輯인 것 같다는 주장은 劉完素와 張元素의 學問的 交流와 相互影響을 근거로 두 인물의 醫學思想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20) 洪元植은 《中國醫學史》에서 劉完素의 著作을 소개하면서 “素問要旨, 宣明論方, 素問玄機原病式, 傷寒直格 등이 있다”라고 하고, “三消論 및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의 二書는 劉氏의 所作이라 되어있으나 확실히 믿을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다. (앞의 책, 217-218쪽.)

21) 《活法機要》의 題目 아래에 아래와 같이 杜思敬이 注를 달았다.

“活法機要 東垣與潔古家珍 及劉守眞病機保命 大同而小異”

朱邦賢·王若水 總審閱: 앞의 책, 1쪽.

後人이 두 사람의 遺作을 한데 합하여 하나의 책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中國醫籍通考》에서 밝혔듯이, 劉完素와 張元素는 서로 다른 學派의 宗主가 되었을 만큼 學術思想이 다르다. 따라서 두 인물의 醫學思想에 유사한 면이 많기때문에 後人이 두 인물의 遺作을 합하여 《保命集》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 3) 《保命集》과 《活法機要》의 관계에 대한 考察

위에서 《保命集》의 著者에 관한 서로 다른 주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명확히 밝히고, 《保命集》의 著者가 누구인가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우선, 張元素가 지었다고 주장하는 측과 劉完素가 지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모두 언급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된 《活法機要》와 《保命集》의 관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活法機要》의 著作者와 著作時期에 관하여 살펴 보고, 《活法機要》와 《保命集》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活法機要》와 《保命集》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 (1) 《活法機要》의 著作者와 著作時期

《活法機要》의 著作者와 著作時期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sup>22)</sup>, 朱邦賢·王若水는 歷代中醫珍本集成 十五卷 中 活法機要의 內容提

22) 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에는 “撰人未詳(或 元代 朱震亨 撰으로 題한 것이 있음). …… 本書를 或 朱氏의 文人이 編述한 것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비교적 오래된 刊行本으로는 「濟生拔粹」本, 「醫統正脈」本 등이 있음.”라고 하여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 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 1985, 서울, 340쪽.

要에서,

“《活法機要》는 元代 朱震亨이 편찬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1300년대 초에 이루어 졌다. 책의 내용은 臨床에서 常見하는 病證인 泄利, 頭風, 熱證, 消渴 및 胎產, 癰瘍, 眼病 등 二十餘種의 病證에 대하여 病의 原因과 病機, 證治方藥 등을 설명하였는데, 그 논리가 精要하고 用藥이 기민하여 法度가 있으므로 活法機要라고 했다. 내용중에는 前人들의 經驗方을 수록한 것외에도 자신의 處方을 적지 않게 수록하였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臨床價値가 있다”<sup>23)</sup>

라고 하여, 朱震亨이 편찬한 것이며, 130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杜思敬은 《濟生拔粹》에서 《活法機要》 제목 아래에 “東垣과 《潔古家珍》 및 劉守眞의 《病機保命》은 大同小異하다”라고 注를 달았고, 丹波元胤은 이 말을 근거로 《活法機要》는 東垣이 지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傅興國도 《活法機要》의 著者에 대하여,

《活法機要》는 《中國醫籍考》의 기재에 근거하면, “(東垣)著作은 매우 많으나 오직 《藥用珍珠囊》, 《脾胃論》……《活法機要》, 《蘭室秘藏》…… 등의 書를 刊行하였다.”라고 하였고, 任應秋는 《中醫各家學說》에서 東垣의 著書中에 《活法機要》를 나열하였다. …… 《醫學發明》과 《活法機要》의 두 書는 東垣의 學術思想을 계통

23)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 앞의 책, 1-2쪽 (內容提要).

적으로 研究하려는 사람에게 다른 서적이 미치지 못한 것을 보충해주므로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다.<sup>24)</sup>

라고 하여, 李東垣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劉時覺은 그의 논문에서 《醫學發明》과 《活法機要》二書에 관하여,

《元史·藝文志》와 《補遼金元藝文志》에서는 편찬자가 李杲라고 하였으나, 《濟生拔粹》와 《古今醫統正脈全書》에서는 朱震亨이 撰하였다 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慈雲樓藏書記》에서는 “撰人을 기록하지 않고, 前後로 序文이나 跋文이 없다. 옛날에는 丹溪의 여러 서적들 뒤에 붙어 있어서 또한 丹溪가 지었다고 여겼으나 근거는 없다.”라고 하여, 丹溪의 著作이라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考察하여 보건대, …… 編輯者인 杜思敬의 序에 이르기를, 潔古의 書는 醫中の 王道로 雲岐子 璧은 그의 아들이고, 東垣, 海藏은 그 道를 좇은 사람이며, 羅天益은 그의 醫術을 풀어서 서술한 사람이라고 하고 …… 모든 사람들이 엄연히 하나의 學派를 이루고 있으며 丹溪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다. 《濟生拔粹》는 실제로 易水學派의 著作들을 모아서 編輯한 것이므로 丹溪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杜思敬이 이와 같은 叢書를 편찬할 때는 元代 至大元年인 戊申年(1308)으로 丹溪의 나이 27세 때이니 이와 같은 著作을 하였을 리가 없다. …… 두 書는 실제로 東垣에게서 나온 것이나 原書에 편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까닭에 後人이 잘못하여 丹溪의 著作으로 인식한 것이다. 또한, 曹炳章이 “그 文人이 편

찬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잘못되었다.<sup>25)</sup>

라고 하여, 丹溪의 저술이 아니라 東垣의 저술이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현존하는 《活法機要》一卷은 李東垣이 지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張元素의 著作으로 알려진 《醫學啓源》중에 “… 痰에는 다섯 가지의 病證이 있으니, 風痰, 氣痰, 熱痰, 寒痰, 溫痰이다. 상세한 내용은 《活法機要》중에 있다”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26)</sup>, 《活法機要》는 적어도 《醫學啓源》이 著述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27)</sup>

25) 劉時覺 : 丹溪著述辨偽, 中華醫史雜誌 1993年 제23권 제271, 107쪽.

26) 張元素 原著, 任應秋 點校 : 醫學啓源, 人民衛生出版社, 1978. 69쪽.

27) 《醫學啓源》이전에 《活法機要》가 이미 있었다면, 《醫學啓源》이 1186년에 편찬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甄志亞 主編 : 中國醫學史, 1992년, 一中社, 影印本, 257쪽; 金容辰·尹暢烈 : 앞의 책, 136쪽.), 《活法機要》를 李東垣이 지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李東垣은 1180년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任應秋는 《醫學啓源》의 點校序言에서,

范聲山の 《雜著》에는 “張元素는 著書가 없다. 張元素의 著書인 《內經類編》, 《難經注》, 《醫學啓源》 등의 모든 書는 그의 高弟子인 李明之가 스승의 說을 계승하여 글로 적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 張元素에게서 나온 것 같지 않다. 단지 책의 앞에 蘭泉老人 張吉의 序文에는, “潔古가 病을 다스리는 法은 古方을 쓰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그를 가리켜 神醫라고 하였다. 한가한 때에 《素問》의 五運六氣, 《內經》의 病을 다스리는 要點, 《本草》의 藥性 등을 모아서 《醫學啓源》이라 이름하고, 門生들을 가르쳤다. 아울러 《醫方》三十卷이 세상에 전해진다. 眞定의 李明之는 門下의 高弟子이다. 나에게 序文을 간청하므로 序文을 쓴다.”라고 하였다. 張吉의 序文은 《金史·本傳》을 근거로 인용한 것이므로 곧 范聲山の 說이며, 따라서 다 믿을 수는 없다. (張元素 原著 任應秋 點校 : 앞의 책, 點校序言 1-2쪽.)

라고 하여, 張元素의 思想을 계승한 것이긴 하지만, 李東垣이 《醫學啓源》을 쓴 것 같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醫學啓

24) 李杲 撰 : 앞의 책, 前言中 1-2쪽.

또 한가지의 가능성은 文脈으로 보아 위의 문장은 後人의 注文이 삽입된 것같은 느낌을 주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李東垣의 著作이라고 말한 《活法機要》에는 다섯가지의 痰病證이 나오지 않고, 《保命集》의 〈咳嗽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때에 혹시 李時珍이 살던 당시나 그 이전에는 李時珍이 말한 대로 《保命集》을 《活法機要》라고도 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예는 《衛生寶鑑》에서도 보인다. 16卷의 泄利論에 《活法機要》에서 문장을 인용하였다고 注를 달았는데, 이 문장은 모두 《保命集》에 들어 있으며, 《活法機要》의 문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保命集》과 《活法機要》를 함께 혼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sup>28)</sup>

## (2) 《保命集》과 비교를 통한 《活法機要》의 내용 考察

《活法機要》의 篇第는 證名 밑에 그 證의 病機에 관하여 論하고, 각각의 處方에 대하여 따로 주치증과 약물구성 및 복용법을 기술하고 있다. 모두 스무개의 病證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保命集》과 비교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

다. 源》은 적어도 1200년 이후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醫學啓源》이 1186년에 편찬되었다는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活法機要》를 李東垣이 지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28) 이러한 예는 이 외에도 明代 《醫學正傳》에도 있다. 《醫學正傳》의 〈中風門〉에는 ‘大秦芎藭’과 ‘羌活愈風湯’을 《活法機要》에서 인용한 것으로 하였는데, 《活法機要》에는 그 내용이 없고, 《保命集》에 들어 있다. 그리고, 許浚의 《東醫寶鑑》에는 《保命集》에서 문장을 인용하면서 대부분 ‘易老’라고 인용표시를 해놓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李時珍의 前後에 《保命集》과 《活法機要》가 같은 이름으로 쓰였으며, 이 시기에 《保命集》의 著者가 ‘易老’, 곧 張元素라고 알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

우선, 스무개의 病證中에서 泄利證, 癰風證, 破傷風證, 雷頭風證, 胎產證, 帶下證, 大頭風證, 瘡證, 熱證, 腫脹證, 心痛證의 十一證은 모두 《保命集》에 있는 각각의 해당 논술중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病機와 辨證 및 用藥을 설명하고 있고, 處方名과 적응증, 處方構成 등의 내용도 《保命集》에서 그대로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消渴證, 眼證, 瘡瘍證, 癰癰證, 咳嗽證, 虛損證, 吐證의 七證은 保命集의 내용을 발췌하여 각각의 證과 處方名, 적응증, 處方構成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위의 11證과 같으나, 일부의 處方들은 《保命集》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處方名이 같아도 處方의 설명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러한 예는 〈吐證〉에서 ‘厚朴丸’에 대한 《保命集》과 《活法機要》의 설명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活法機要 : “主反胃吐逆 飲食噎塞 氣上衝心 腹中諸疾 其藥味即與萬病紫苑丸同 方在元戎方內附其加減于後 春夏再加黃連 二兩 秋冬再加厚朴 二兩 如治風於春秋 所加黃連厚朴外 更加菖蒲茯苓各一兩半 如治風痼不愈者 依春秋加減外 更加人蔘菖蒲茯苓各一兩半 如失精者 加菖蒲白茯苓爲輔 如肝之積加 柴胡蜀椒爲輔 如心之積加黃連人蔘爲輔 如脾之積加吳茱萸乾薑爲輔 如腎之積加菖蒲茯苓爲輔 秋冬久瀉不止加黃連茯苓”

保命集 : “主反胃吐逆 飲食噎塞 氣上衝心 腹中諸疾 其加減于後 春夏再加黃連 二兩 秋冬再加厚朴 二兩”

위에서 밑줄친 부분이 《保命集》과 동일한 내용이며, 그 외의 내용은 《保命集》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消渴證 등 일곱 가지 證

들은 모두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頭風證과 疝證에 관한 것은 《保命集》에는 없는 내용으로 《活法機要》에만 있다.

위의 사실에서 《活法機要》는 《保命集》의 上卷부분을 제외한 中, 下卷의 病證에 관한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臨床에 편리하게 요약하였으며, 필요에 의하여 일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杜思敬은 《活法機要》와 《保命集》이 大同小異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의 내용만으로 보면 《保命集》이 《活法機要》보다 먼저 존재했으며, 《活法機要》와 《保命集》은 다른 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醫學啓源》, 《衛生寶鑑》 등에 《保命集》을 《活法機要》의 이름으로도 사용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후대에 《活法機要》의 내용이 《保命集》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혼동한 것 같다. 李時珍이 《保命集》을 一名 《活法機要》라고 한다고 한 주장도 이러한 혼동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丹波元胤 등이 李時珍의 주장을 그르다고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李時珍이 《保命集》과 《活法機要》를 혼동하였다고 하더라도 《保命集》의 著者가 張元素라고 주장한 李時珍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 《保命集》의 내용을 통한 考察

위에서 《保命集》의 著者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와 《活法機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保命集》의 著者에 관하여 歷代의 醫家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도 《保命集》의 내용에 관하여

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거나, 단지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에 본인은 《保命集》의 내용중 두 인물의 대표적인 醫學思想을 잘 드러내 준다고 생각되는 〈病機論 第七〉, 〈傷寒論 第六〉, 〈本草論 第九〉, 〈藥略 第三十二〉와 기타 病證編의 내용을 考察하여 《保命集》에 劉完素와 張元素 중 누구의 醫學思想이 들어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考察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1) 〈病機論 第七〉의 考察

《保命集》의 〈病機論 第七〉은 《素問·至真要大論》중의 十九病機와 劉完素가 첨가한 “諸澁枯涸 乾勁絞揭 皆屬於燥”라는 條文을 함하여 모두 20개의 條文 각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十九病機의 理論은 劉完素의 《原病式》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張元素는 《醫學啓源》에 《原病式》의 내용을 전부 흡수하였기 때문에<sup>29)</sup>, 주로 《原病式》과 비교하였다.

〈病機論 第七〉을 편의상 《原病式》의 분류를 따라 크게 五運主病과 六氣爲病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五運主病

諸風掉眩 皆屬於肝, 諸痛痒瘡瘍 皆屬於心, 諸濕腫滿 皆屬脾土, 諸氣膈鬱 病痿 皆屬於肺, 諸寒收引 皆屬於腎水

##### 1. 說明方式

《保命集》의 설명방식을 살펴보면, 病機條文 다음에 “風勝則動…”, “熱勝則腫…”, “濕勝則濡泄…”, “燥勝則乾…”, “寒勝則浮…”라 하여 개괄하

29) 金容辰, 尹錫烈 : 앞의 책, 138쪽.

고, 다음에 이어서 《六節臟象論》과 《靈蘭秘傳論》의 내용을 인용하여 五藏을 설명하고 있으며, 風熱濕燥寒의 特徵과 病證을 나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病證을 治療하는 治法을 “燥勝風”, “寒勝熱”, “風勝濕”, “熱勝燥”, “寒勝熱 燥勝寒”이라고 하고, 또한 “風淫于內 治以辛涼…”, “熱淫于內, 治以鹹寒…”, “濕淫於內, 治以苦熱…”, “燥淫于內, 治以苦溫…”, “熱淫於內, 治以鹹寒…”, “寒淫于內, 治以甘熱…”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모두 《內經》과 王冰의 注를 인용하였다.

## 2. 病證에 대한 생각

《保命集》의 著者는 〈病機論 第七〉 속에서 각 病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을 《原病式》, 《宣明方論》의 설명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諸風掉眩 皆屬於肝

《保命集》: “凡病肝木風疾者 以熱爲本 以風爲標 故火本不燔 寓風烈乃焰 肝本不甚熱 因金衰而旺 肺金不勝心火 木來侮於金 故諸病作矣”

《宣明方論》: “風本生熱 以熱爲本 風爲標 言風者 卽風熱病也<sup>30)</sup>”

《保命集》: “風淫於內 治以辛涼 肝欲散 急食辛以散之 故木主生榮 而主春 其性溫故風火 則反涼而毀折 是兼金化制其木也 故風病過極 而反中外燥澀 是反并金化也 故非爲金制其本”

《原病式》: “風病過極 則反燥 筋脈勁急 反兼金化制之也<sup>31)</sup>”

《保命集》: “中風偏枯者 由心火暴甚 而水衰不能制 則火實克金 金不能平木 則肝木勝 而兼於火熱 則卒暴強仆”

《原病式》: “如中風偏枯者 由心火暴甚 而水衰不能制之 則火能克金 金不能克木 則肝木自甚 而兼于火熱 則卒暴強仆 多因五志 七情過度而卒病也<sup>32)</sup>” “由乎將息失宜 而心火暴甚 腎水虛衰 不能制之 則陰虛陽實 而熱氣拂鬱 心神昏冒 筋骨不用而卒倒無所知也<sup>33)</sup>”

### 2) 諸痛痒瘡瘍 皆屬於心<sup>34)</sup>

《保命集》: “熱甚火赫 燥石流金 火之變也” “夏月火熱極甚 則天氣薰蒸 而萬物反潤 以水出液 林木津流 及體熱極 而反汗液出 是火極而反兼水化”

《原病式》: “經曰 亢則害 承乃制 謂亢過極 則反兼勝己之化 制其甚也 如以火鍊金 熱極則反爲水, 又如六月熱極 則物反出液 而濕潤 林木流津… 中略 … 熱氣薰蒸于物 而生津者也<sup>35)</sup>” “以火鍊金 熱極而反化爲水 及身熱極則反汗出也<sup>36)</sup>”

### 3) 諸濕腫滿 皆屬脾土

《保命集》: “土主濕黔雲雨 而引靜雨 熱極甚則飄驟散落 是反兼風木制其土也 若脾土自邕 燥去其濕 以寒除熱 脾土氣衰 以甘緩之 所以燥泄 積飲痞隔 腫滿 濕熱 乾痼 消渴 慎不可以溫藥補之 故積溫成熱 性之溫乃勝氣之藥也”

《原病式》: “脾胃土 本濕也 濕氣自甚 則爲積飲 痞隔 或爲腫滿 以藥燥去其濕 是謂瀉其脾胃土

30) 劉完素 著: 宣明方論, 四庫全書, 大星文化社, 1995. 780쪽.

31) 劉完素 著: 原病式, 四庫全書, 大星文化社, 1995. 739쪽.

32) 原病式, 앞의 책, 723쪽.

33) 原病式, 앞의 책, 733쪽.

34) 원래 《內經》에는 “諸痛痒瘡 皆屬於心”이라 되었다. 이것을 劉完素가 “諸痛痒瘡瘍 皆屬心火”라 고쳤는데, 《保命集》에서는 “諸痛痒瘡瘍”이라고 하여 劉完素의 條文을 따랐다.

35) 原病式, 앞의 책, 715쪽.

36) 原病式, 앞의 책, 719쪽.

之本也 或病燥熱大甚 而脾胃乾涸 成消渴者 土濕之氣衰也 宜以寒藥(缺文) 土氣得其平 是 謂補其脾<sup>37)</sup>” “經言 積濕成熱 豈可以溫藥 補于土濕也? 溫屬春木 正以勝其土濕爾<sup>38)</sup>”

#### 4) 諸氣臃鬱 病痿 皆屬於肺金<sup>39)</sup>

《保命集》：“金主於秋 而屬陰 其氣涼 涼極天氣清明 而萬物反燥 故燥苦火 是金極而反兼火化也 故病血液衰也 燥金之化 極甚則煩熱 氣鬱痿弱 而手足無力 不能收持也”

《原病式》：“大抵 肺主氣 氣爲陽 陽主輕清而升 故肺居上部 病則其氣臃滿奔迫 不能上升 至於手足 痿弱不能收持 由肺金本燥 燥之爲病 血液衰少 不能營養百骸故也<sup>40)</sup>” “所謂 中風 或筋緩者 因其風熱勝濕而爲燥 乃燥之甚也 然筋緩不收 而痿痺故諸臃鬱 病痿 皆屬肺金 乃燥之化也… 中略 …夫燥之爲病 血液衰少也 而又氣血不能通暢 故病然也<sup>41)</sup>”

#### 5) 諸寒收引 皆屬於腎水<sup>42)</sup>

《保命集》：“水本寒 寒急則水冰如地 而能載物 水發而雹雪 是水寒亢極 反似克水之土化 是謂兼化也”

《原病式》：“水體柔順 而今反堅硬如地 亢則害承 乃制也<sup>43)</sup>”

37) 原病式, 앞의 책, 736쪽.

38) 原病式, 앞의 책, 737쪽.

39) 《內經》에는 원래 “諸氣臃鬱, 皆屬於肺”라 되어 있고, 劉完素는 《原病式》에서 《內經》의 原文을 바꾸어 “諸氣臃鬱, 病痿, 皆屬肺金”이라 하고 있는데, 《保命集》에서는 劉完素의 用文을 그대로 따랐다.

40) 原病式, 앞의 책, 710쪽.

41) 原病式, 앞의 책, 736쪽.

42) 四庫全書의 《保命集》에는 “諸寒熱, 皆屬於腎水”라 되어 있으나, 《河間三六書》의 《保命集》에는 “諸寒收引, 皆屬於腎水”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河間三六書》의 내용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諸寒收引, 皆屬於腎水”로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保命集》에서 설명하는 病證의 설명과 《原病式》이나 《宣明方論》의 설명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3. 治法의 考察

《保命集》의 治法을 五藏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燥勝風…風淫於內 治以辛涼, 肝欲散 急食辛以散之

② 以寒勝熱…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甘苦 以酸收之 以苦發之, 心欲栗 急食鹹以栗之

③ 風勝濕…濕淫於內 治以苦熱 佐以酸淡 以苦燥之 以淡泄之,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④ 熱勝燥…燥淫於內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苦下之, 若肺氣上逆 急食苦以泄之

⑤ 寒勝熱…寒淫於內 治以甘熱 佐以苦辛 寒淫所勝 平以辛熱,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腎欲堅 食苦以堅之(命門相火 治法)

燥勝寒…熱淫於內 治以鹹寒 火所勝 平以鹹冷

이것은 《內經》의 治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原病式》과 《宣明論方》에는 이와 같이 《內經》을 인용하여 체계적으로 治法을 설명한 곳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張元素의 《醫學啓源》 下卷의 「制方法」과 「五行制方生克法」에서 보이는데,

經曰 肝苦急 急食甘以緩之 ;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 肺氣上逆 急食苦以泄之 ;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 肝欲散 急食辛以散

43) 原病式, 앞의 책, 739쪽.

之 以辛補之 以酸瀉之 心欲熅 急食鹹以熅之 以鹹補之 以甘瀉之 脾欲緩 急食甘以緩之 以甘補之 以苦瀉之 肺欲收 急食酸以收之 以酸補之 以辛瀉之 腎欲堅 食苦以堅之 以苦補之 以鹹瀉之<sup>44)</sup>

風 制法...風淫於內 治以辛涼 佐以苦辛 以甘緩之 以辛散之

暑 制法...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甘苦 以酸收之 以苦發之

濕 制法...濕淫於內 治以苦熱 佐以酸淡 以苦燥之 以淡泄之

燥 制法...燥淫於內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苦下之 以辛潤之

寒 制法...寒淫於內 治以甘熱 佐以苦辛 以辛散之 以苦堅之<sup>45)</sup>

라고 하여, 《醫學啓源》에서는 《藏氣法時論》, 《至眞要大論》중에서五味의 治法을 바탕으로 治法을 체계화하였다.

## (2) 六氣爲病

### 1) 諸厥固泄 皆屬於下<sup>46)</sup>

《保命集》：“厥謂氣逆 固爲禁固 氣則肝腎失守 失守則不能禁固 出入無度 燥濕不恒 故氣下則愈也”

《原病式》：“病寒則四肢逆冷 而禁止堅固 舒卷不便利也<sup>47)</sup>”

### 2) 諸痿喘嘔逆 皆屬於上<sup>48)</sup>

《保命集》：“肺熱葉焦 發痿躄 是氣鬱不利 病

喘息而嘔也 嘔謂嘔酸水 火氣炎上之象也 胃膈熱甚 則爲嘔也 若衰火之炎 痿躄則愈 利肺之氣 喘息自調也 道路開通 吐嘔則除 凡病嘔湧溢食 皆屬之火也”

《原病式》：“病熱則氣甚而息亂...熱火爲陽 主乎急數 故...熱則息數氣亂 而爲喘也<sup>49)</sup>” “胃膈熱甚 則爲嘔 火氣炎上之象也<sup>50)</sup>” “酸者 肝木之味也 由火盛制金 不能平木 則肝木自甚 故爲酸也 如飲食熱 則易於酸矣<sup>51)</sup>” “火氣炎上 胃膈熱甚 則轉化失常故也<sup>52)</sup>”

### 3) 諸熱瞀瘵 皆屬於火

《保命集》：“熱氣甚 則濁亂昏昧也 瞀示乃昏也 經所謂 病筋脈相引而急 名曰瘵者 故俗爲之搖是也 熱勝風搏 并于經絡 故風主動而不寧 風火相乘 是以熱瞀瘵而生矣 治法祛風滌熱之劑 折其火勢 熱瘵可立愈”

《原病式》：“瞀...如酒醉 而心火熱甚 則神濁 味而瞀理也<sup>53)</sup>” “瘵 動也 惕躁動瘵 火之體也<sup>54)</sup>”

### 4) 諸禁鼓 如喪神守 皆屬於火

《保命集》：“禁慄驚惑 如喪神守 悸動怔忡 皆熱之內作 故治當以 除火劑 其神守 血榮而愈也”

《原病式》：“慄 戰慄也 禁冷也...如喪神守者 神能御形 而反禁慄 則如喪失保守形體之神也<sup>55)</sup>”

### 5) 諸痿項強 皆屬於濕

《保命集》：“寒濕同性 水火同居 故足太陽膀胱

44) 張元素 著： 앞의 책, 167-168쪽.

45) 張元素 著： 앞의 책, 214-216쪽.

46) 《原病式》에는 이 條文의 病證이 '寒類'에 속해 있다.

47) 原病式, 앞의 책, 740-741쪽.

48) 《內經》에는 “諸痿喘嘔 皆屬於上”으로 되어 있고, 《原病式》에는 「五運主病」에 “病痿”(原病式, 앞의 책, 710쪽)가, 熱類에 “喘”과 “嘔”(原病式, 앞의 책, 711쪽)가 있다.

49) 原病式, 앞의 책, 711쪽.

50) 原病式, 앞의 책, 711쪽.

51) 原病式, 앞의 책, 711쪽.

52) 原病式, 앞의 책, 731쪽.

53) 原病式, 앞의 책, 725쪽.

54) 原病式, 앞의 책, 725쪽.

55) 原病式, 앞의 책, 727쪽.

經 屬水而爲下 所以濕可傷也”

《原病式》：“亢則害 承乃制 故濕過極 則反兼風化制之 然兼化者 虛象而實非風也<sup>56)</sup>”

6) 諸逆衝上 皆屬於火

《保命集》：“火氣炎上 故嘔涌溢食不下也”

《原病式》：“火氣炎上故也<sup>57)</sup>”

7) 諸脹腹大 皆屬於熱

《保命集》：“肺主於氣 貴乎通暢 若熱甚則鬱于內 故肺脹而腹大 是以火主長而高茂 形見彰顯 升明舒葉 皆腫之相也”

《原病式》：“氣爲陽 陽爲熱 氣甚則如是也<sup>58)</sup>”

8) 諸燥狂越 皆屬於火

《保命集》：“陽盛則 使人妄言 罵詈 不避親疎 神明之亂也 故上善若水 下愚若火 此之謂也”

《原病式》：“躁動煩熱 擾亂而不寧 火之體也 熱甚于外 則支體躁擾 熱甚于內 則神志躁動 反復癲狂<sup>59)</sup>” “夫外清而內濁 動亂參差 火之體也…中略…腎水主志 而水火相反 故心火旺 則腎水衰 乃失志 而狂越也…怒爲肝志 火實制金 不能平木 故肝實則多怒而爲狂也<sup>60)</sup>”

9) 諸暴強直 皆屬於風

《保命集》：“暴 虐而害也 強勁有力 而不能和柔也 乃厥陰風木 勢甚而成此”

《原病式》：“暴 卒也 虐害也 強勁有力 而不柔和也…燥金主於緊斂 短縮勁切 風木爲病 反見燥金之化 有亢則害 承乃制也<sup>61)</sup>”

10) 諸病有聲 鼓之如鼓 皆屬於熱

《保命集》：“腹脹大 而鼓之有聲 如鼓者 熱氣甚則然也… 所謂 土勝堅水則乾 急與大承氣湯下之以救腎水 故知無寒 其熱明矣”

《原病式》：“腹脹大 鼓之如鼓 氣爲陽 陽爲熱 氣甚則如是也<sup>62)</sup>”

11) 諸病附腫 疼痠驚駭 皆屬於火

《保命集》：“附腫 熱勝內則陽氣滯故也 疼痠 有火實制金 不能平木 則木旺而爲酸 酸者 肝之味也”

《原病式》：“附腫 熱勝肉 而陽氣鬱滯故也<sup>63)</sup>” “酸疼也 有火實制金 不能平木 則木旺而爲兼化 故言酸疼也<sup>64)</sup>”

12) 諸轉反戾 水液混濁 皆屬於熱

《保命集》：“熱氣燥燄于筋 故筋轉而痛 應風屬于肝也 甚則吐不止 喝熱之氣 加之以泄 濕勝也 熱則小便渾而不清 寒則潔而不濁 故井水煎湯 沸則自然混濁也”

《原病式》：“熱氣燥燄于筋 則攣蹙而痛 火主燔灼 燥動故也…或不因吐瀉 但外冒于寒 而腠理閉密 陽氣拂鬱 熱乃作 熱燥于筋 則轉筋也<sup>65)</sup>” “天氣熱 則水混濁 寒則清潔… 清水爲湯 則自然混濁也<sup>66)</sup>”

13) 諸病水液 澄徹清冷 皆屬於寒

《保命集》：“水清淨 其氣寒冷 水穀不化 而吐利其色白腥穢 傳化失常 食已不飢”

《原病式》：“水體清淨 而其氣寒冷 故水穀不化 而吐利清冷 水液爲病寒也<sup>67)</sup>”

56) 原病式, 앞의 책, 725쪽.

57) 原病式, 앞의 책, 727쪽.

58) 原病式, 앞의 책, 712쪽.

59) 原病式, 앞의 책, 726쪽.

60) 原病式, 앞의 책, 726쪽.

61) 原病式, 앞의 책, 711쪽.

62) 原病式, 앞의 책, 712쪽.

63) 原病式, 앞의 책, 727쪽.

64) 原病式, 앞의 책, 727쪽.

65) 原病式, 앞의 책, 712쪽.

66) 原病式, 앞의 책, 712쪽.

67) 原病式, 앞의 책, 739쪽.

14) 諸嘔吐酸 暴注下迫 皆屬於熱

《保命集》：“吐嘔吐酸者 胃膈熱甚 則鬱滯於氣 物不化而爲酸也 酸者肝木之味 或言 吐酸爲寒 者 誤也 暴注者 是注泄也 乃腸胃熱而傳化失常… 下迫者 後重裏急 窘迫急痛也 火性急速 而能造物故也”

《原病式》：“酸者 肝木之味也 有火盛制金 不能平木 則肝木自甚 故爲酸也 如飲食熱 則易於酸矣 或言吐酸爲寒者 誤也<sup>68)</sup>” “卒暴注泄也 腸胃熱甚而傳化失常 火性疾速 故如是也<sup>69)</sup>” “後重裏急 窘迫急痛也 火性急速 而能燥物故也<sup>70)</sup>”

15) 諸澁枯涸 乾勁皴揭 皆屬於燥<sup>71)</sup>

《保命集》：“澁枯者 水液氣衰少血 不榮於皮肉 氣不通利故皮膚皴揭而澁也… 冬月甚而夏月衰 故法曰 寒能收斂 收斂則燥澁皴揭 熱能縱緩 則滋榮潤澤 皆屬燥金之化也”

《原病式》：“由水液衰少而燥澁 氣行壅滯而不得活澤通利 氣強攻衝而爲麻也<sup>72)</sup>” “如地濕則縱緩滑澤 乾則緊斂燥澁 皴揭之理 明可見焉… 所謂寒月甚而暑月衰者 由寒能收斂 腠理閉密 無汗而燥 故病甚也 熱則皮膚縱緩 腠理疏通而汗潤 故病衰也<sup>73)</sup>”

(3) 〈病機論 第七〉의 종합

위에서 《保命集》 〈病機論 第七〉의 내용을 五運主病과 六氣爲病으로 크게 分類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五運主病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原病式》에 서술된 내용과 대부분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保命集》의 “中風偏枯者 由心火暴甚 而水衰不能制 則火實克金 金不能平木 則肝木勝 而乘於火熱 則卒暴強仆”라고 한 것과, 《原病式》의 “如中風偏枯者 由心火暴甚 而水衰不能制之 則火能克金 金不能克木 則肝木自甚 而乘於火熱 則卒暴強仆 多因五志 七情過度而卒病也<sup>74)</sup>”라고 한 것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保命集》의 五運主病 중에는 각 病證의 治法에 대하여 《內經》을 인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는데, 劉完素의 著作 중에는 그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張元素의 《醫學啓源》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

六氣爲病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諸厥固泄 皆屬於下”, “諸熱昏憒 皆屬於火熱”, “諸禁鼓 如喪神守 皆屬於火”, “諸瘧項強 皆屬於濕”, “諸脹腹大 皆屬於熱”, “諸燥狂越 皆屬於火”의 여섯 條文에 대한 설명은 《保命集》과 《原病式》이 상당히 다르며, 그 이외의 條文에 대한 설명은 거의 유사하다. 또한, 〈病機論〉 중의 “諸澁枯涸 乾勁皴揭 皆屬於燥”라는 條文은 《原病式》에서 劉完素가 처음으로 기재한 것으로 《內經》중에는 보이지 않는 條文인데, 《保命集》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保命集》이 劉完素의 《原病式》이나 《宣明方論》, 그리고 張元素의 《醫學啓源》과 病機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病機의 分類方法이다. 위에 열거한 책에는 病機를 설명함에 五運主病과 六氣爲病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六氣爲病의 경우에는 《內經》의 條文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風類’, ‘熱類’, ‘火類’, ‘濕類’, ‘燥類’, ‘寒類’로 크게 分類하여 여러 條文을 아우르고, 또한 여러 가지의 病證을 추가하여 놓았다. 그런데, 《保命集》에서는 이렇게 분

68) 原病式, 앞의 책, 711쪽.

69) 原病式, 앞의 책, 711쪽.

70) 原病式, 앞의 책, 711쪽.

71) 이 條文은 《內經》에는 원래 없으나, 劉完素가 《原病式》에서 처음 기재한 것이고, 《保命集》에서는 그 原文을 그대로 싣고 있다.

72) 原病式, 앞의 책, 738쪽.

73) 原病式, 앞의 책, 738쪽.

74) 原病式, 앞의 책, 723쪽.

류하지 않고 條文 하나 하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에 《保命集》〈病機論 第七〉의 내용은 대부분 劉完素가 지은 《原病式》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病機條文의 설명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劉完素의 초기 著作으로 알려진 《宣明論方》에도 病機에 관하여 五運主病과 六氣爲病으로 크게 分類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六氣爲病의 경우에는 ‘風類’, ‘熱類’, ‘火類’, ‘濕類’, ‘燥類’, ‘寒類’로 모든 條文을 아우르고 病證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內經》의 治法을 인용하여 체계화한 것은 劉完素의 著作에서는 보이지 않고, 張元素의 《醫學啓源》에 이와 유사한 내용과 들어있었다.

## 2) 〈傷寒論 第六〉의 내용 考察

《保命集》〈傷寒論 第六〉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考察하여 보았다.

### (1) 傷寒病에 관하여

《保命集》에는 傷寒病에 관하여,

는하여 말하기를, 무릇 熱病은 다 傷寒의 무리이다. 혹 낮기도 하고, 혹 죽기도 하는 것이 단지 六七日 사이에 일어난다. 만일 寒邪에 兩感한 者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經에 이르기를, 사람이 寒邪에 傷하면 熱病을 앓는데, 熱이 비록 심하여도 죽지는 않는다 하였다. 모든 傷寒은 雜病에 비할 바가 아니니, 仲景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그러므로 張先公만이 玄機의 理致를 깊이 體得하여 六經의 標本에 通達하고, 汗法과 下法の 깊고 淺음을 알았다.<sup>75)</sup>

75) 保命集, 앞의 책, 10쪽.

라고 하여, 傷寒病은 熱病이며 傷寒의 病情은 매우 急迫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張仲景만이 그러한 급박한 傷寒病의 理致를 알고 治療法을 밝혔다고 하였다.

또한, 傷寒病의 病證에 관하여 《素問·熱論》의 내용을 인용하여,

“經에 이르기를 一日에는 太陽이 病을 받아서 그 脈은 尺部와 寸部에 모두 浮脈이 나타나고, 二日에는 陽明이 病을 받아서 그 脈은 尺部와 寸部に 모두 長脈이 나타나며……六日에는 厥陰이 病을 받아서 그 脈은 尺部와 寸部に 모두 沈瀯한 脈이 나타난다.”<sup>76)</sup>

라고 하여, 傷寒病證이 太陽, 陽明, 少陽, 少陰, 太陰, 厥陰의 순서에 따라 傳變함과 三陰三陽 各病證의 脈을 설명하였으며, 三陰三陽 各各의 病證에 대하여는,

太陽病은 標와 本이 같지 않아 標는 熱하고 本은 寒하다. 標를 좇으면 太陽에서 發熱하고, 本을 좇으면 膀胱에서 惡寒한다. 만일 頭項痛, 腰脊強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太陽經의 病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發汗시켜야 한다. 陽明病은 비록 中氣를 좇으나 標는 陽이고 本은 實하다. 標를 좇으면 肌肉이 實하고, 本을 좇으면 譫語한다. 만일 身熱, 目痛, 鼻乾, 不得臥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陽明經

“論曰 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 或愈 或死 止於六七日間 若兩感於寒者 必不免於死 經所謂 人之傷於寒者 則爲病熱 熱雖甚不死 皆傷寒者 非雜病所比 非仲景 孰能明此 故張先公 深得玄機之理趣 達六經之標本 知汗下之淺深”

76) 保命集, 앞의 책, 10쪽.

“經云 一日巨陽受之 其脈尺寸俱浮 二日陽明受之 其脈尺寸俱長……六一 厥陰受之 其脈尺寸俱沈瀯”

의 病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解肌시켜야 한다… 만약 諛語하면 本을 좇아 實한 것이므로 마땅히 瀉下해야 한다…<sup>77)</sup>

라고 하여, 傷寒病의 病機를 標本中 理論에 의하여 標와 本을 좇아 생긴 病과 經絡의 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러한 것을 구별하여 傷寒病證을 치료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2) 傷寒病의 治法

《保命集》에서는 傷寒病의 治法에 대하여,

“만일 發汗을 시킬때에 桂枝湯이나 麻黃湯 등을 쓰는 것은 피부에 있는 것은 땀을 내서 발하게 하는 방법이고, 葛根湯이나 升麻湯 등을 쓰는 것은 그 가벼운 것을 날려버리는 방법이다. 承氣湯이나 陷胸湯 등을 쓰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을 당겨서 없애는 방법이고, 瀉心湯이나 十棗湯 등을 쓰는 것은 가운데에서 막힌 것을 뚫어서 내보내는 방법이며, 瓜蒂散이나 梔子豉湯 등을 쓰는 것은 높은 데에 있는 것을 넘겨버리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 네가지 治法의 輕하고 重함을 아는 것은 傷寒病을 치료하는 法則이 된다.”<sup>78)</sup>

“만일 六經과 네 가지의 治法을 안다면 어찌 發黃, 生斑, 蓄血證 등의 怪證과 結胸, 痞氣 등 약을

잘못 사용하여 생기는 病證이 생기겠는가.”<sup>79)</sup>

라고 하여, 《內經》의 治法과 仲景의 治方을 연결하여 治法의 대체를 설명하고, 六經 標本の 病證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선택하여 治療하여야 誤治로 인한 怪證과 藥禍가 생기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保命集》에서는 傷寒이 곧 熱病이고 病情이 急迫하며 變化가 심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傷寒病의 治法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雙解散과 通聖散 등 辛凉한 味の 處方을 만든 것은 仲景이 제시한 桂枝湯, 麻黃湯 등의 發表시키는 藥을 사용하는 法을 따르지 않았으니,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때와 그 때에 五運六氣가 바뀌고 世態와 사는 사람이 변하여 하늘도 항상 火로써하고 사람도 항상 動한다. 動하는 것은 陽에 속하고 靜하는 것은 陰에 속하니 內와 外가 모두 動搖하므로 辛溫大熱한 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한 藥이 비록 어찌다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그 禍가 자주 생기니, 어찌 葱白과 鹽豉 등 辛凉한 藥物이 鬱結을 풀어서 비록 病에 적중하지 않더라도 땀을 나게 하면서 病이 낮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辛熱한 藥物로 表를 칠때에 그 병에 적중하지 않으면 驚狂, 衄血, 斑出 등 더욱甚한 病으로 전변되니 이것이 모두 熱藥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임을 알겠는가. 그러므로 藥을 잘 쓰는 사람은 모름지기 寒凉한 味の 藥物을 알아야 한다.<sup>80)</sup>

77) 保命集, 앞의 책, 10-11쪽.

“其太陽病者 標本不同 標熱本寒 從標太陽發熱 從本則膀胱惡寒 若頭項痛 腰脊強 太陽經病也 故宜發汗. 其陽明病者 雖從中氣 標陽本實 從標則肌實 從本則諛語 若身熱目痛鼻乾不得臥 陽明經病 故宜解肌. ……若諛語從本爲實 故宜下便……”

78) 保命集, 앞의 책, 11쪽.

“如發汗 桂枝麻黃之輩 在皮者 汗而發之, 葛根升麻之輩 因其輕而揚之也. 升氣陷胸之輩 下者 引而竭之也, 瀉心十棗之輩 中滿 世之法也 瓜蒂梔豉者 高者 因而越之也 故明此四治之輕重 可爲了傷寒之綱墨”

79) 保命集, 앞의 책, 11쪽.

“若明六經四法 豈有發黃生斑蓄血之壞證 結胸痞氣之藥過”

80) 保命集, 앞의 책, 11쪽.

“余自製雙解通聖 辛凉之劑 不遵仲景法 桂枝麻黃 發表之藥 非余自銜 理在其中矣. 故此一時 彼一時 奈五運六氣

라고 하여, 傷寒病은 마땅히 辛涼한 藥으로 治療해야 하며, 辛溫한 藥을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傷寒論 第六〉의 종합

《保命集》에서 傷寒病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傷寒病에 대한 인식과 그 治法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는 傷寒病의 病機에 관한 내용이다.

첫째, 傷寒病의 인식과 그 治法에 대하여, 《保命集》은 傷寒病을 모두 '熱病'이라 인식하고, 그 治法으로는 辛涼解表藥을 사용하여 치료해야 하며, 그래야 辛溫한 약을 잘못 사용하여 생기는 怪證이나 藥禍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劉完素는 《原病式》에서,

表熱服石膏 知母 甘草 滑石 葱豉之類寒藥 汗出而解者 及熱病 半在表半在裏 服小柴胡湯寒藥 能令汗出而愈者 熱甚服大柴胡湯下之……發黃者 茵陳湯下之 結胸者 陷胸湯丸下之 此皆大寒之利藥也 反能中病 以令汗出而愈<sup>81)</sup>

라고 하여, 傷寒病은 陽氣가 鬱結되어 생긴 熱病이므로 表證, 裏證, 半表半裏證을 모두 寒涼한 藥으로 치료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宣明方論》에서 劉完素는 傷寒病에

有所更 世態居民 有所變 天以常火 人以常動 動則屬陽 靜則屬陰 內外皆搖 故不可峻用辛溫大熱之劑 縱獲一效 其禍數作 豈晚辛涼之劑 以葱白鹽豉 大能開發鬱結 不惟中病 令汗而愈 免致辛熱之藥 攻表不中其病 轉甚發 驚狂 衄血 斑出 皆屬熱藥所致 故善用藥者 須知寒涼之味

81) 原病式, 앞의 책, 716쪽.

대하여 《素問·熱論》을 인용하여,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 人之傷於寒則爲病熱 熱雖甚不死<sup>82)</sup>

一日巨陽膀胱受之…二日 陽明胃受之 三日少陽膽受之 未入其藏 可汗之. 四日太陰脾受之 五日少陰腎受之 六日厥陰肝受之 既入藏 可泄之<sup>83)</sup>

라고 하여, 傷寒病은 모두 熱病이며, 그의 치료는 表에 있는 것은 汗法으로 解表하고, 裏로 들어간 것은 泄法으로 瀉下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傷寒病의 辨證施治에 있어서 그 辨證綱領은 〈傷寒表證〉, 〈傷寒表裏證〉에 잘 나타나 있는데,

夫傷寒之候 頭項痛 腰脊強 身體拘急 表熱惡寒 不煩躁 無自汗 或頭而痛 肌熱 鼻乾 或胸滿而喘 手足指末厥 脈浮數而緊者 邪熱在表 皆麻黃湯 發汗之證也 或天水散之類甚可<sup>84)</sup>

傷寒身熱爲熱在表 引飲或小便黃赤 熱在裏, 身熱渴或小便黃赤 爲表裏俱熱, 涼不渴 小便清白爲表裏俱無熱, 身疼拘急表熱惡寒而脈浮者 皆爲熱在表也, 引飲譫妄腹滿實痛 發熱而脈沈者 皆爲熱在裏也, 胸脇痞痛 或嘔而實熱往來 脈在肌肉者 邪半在表半在裏也<sup>85)</sup>

라고 하여, 邪氣의 종류에 관계없이 체내에서 疾病이 발생하면 化熱한다고 보아, 辨證함에 있어서 病位를 가릴때에 오직 熱이 있는 곳을 밝히려 고 하였고, 그 나타내는 症狀에 따라 表病과 裏病

82) 宣明方論, 앞의 책, 782쪽.

83) 宣明方論, 앞의 책, 781쪽.

84) 宣明方論, 앞의 책, 781쪽.

85) 宣明方論, 앞의 책, 781쪽.

을 변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劉完素는 外感六淫의 邪氣가 모두 外感病을 일으킨다는 것과 外感의 邪氣가 病을 일으키면 모두 熱로 化하므로 辨證시에는 熱의 소재를 파악하여 表에 있으면 汗法을, 裏에 있으면 瀉法을, 半表半裏에 있으면 和解法을 사용하여 치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傷寒論의 治法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독특한 病因 및 病機理論과 결부하여 독특한 辨證論治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治法으로는 《宣明方論》에서

傷寒表證當汗而不可下, 裏證當下而不可汗, 半在表半在裏則當和解 不可發汗吐下, 在上則涌之, 在下則泄之<sup>86)</sup>

傷寒無汗表病裏和則麻黃湯汗之, 或天水散之類亦佳.

表不解 半入於裏 半尚在表者 小柴胡湯和解之或天水涼膈散 甚良

表裏熱勢俱甚者 大柴胡湯微下之 更甚者 大承氣湯下之

表熱多裏熱少者 天水一涼膈半 和解之

裏熱多表熱少 未可下之者 涼膈天水一半調之 勢更甚者 小承氣湯下之

凡此諸可下者 通宜大承氣湯下之

凡此諸可下者 通宜三一承氣湯下之

發汗不解 下後前後別無異證者 通宜涼膈散調之以退其熱...<sup>87)</sup>

라고 하여, 病位에 따른 治法과 傷寒無汗證에

대한 證治를 하고 있는데, 그 證治에 있어서 麻黃證을 天水散으로, 小柴胡湯證을 天水涼膈散으로, 大柴胡湯이나 大承氣湯證을 三一承氣湯 등 寒涼한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의 傷寒方에는 三一承氣湯, 桂苓甘露飲, 涼膈散, 防風通聖散, 黃連解毒湯, 雙解散 등의 處方이 있고, 이러한 處方은 傷寒病뿐만 아니라 雜病에도 두루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劉完素의 학술적 특징인 火熱의 病機論과 陽氣佛鬱說 등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며, 《保命集》의 傷寒論에 대한 인식이나 그 治法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둘째, 傷寒病의 病機에 대하여, 《保命集》은 標本과 經絡의 病으로 나누어 病機를 설명하고, 이에 의하여 辨證施治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張元素의 아들인 張璧은 張元素의 醫學思想을 계승하였는데, 張璧의 《雲岐子保命集論類要》에 傷寒病의 辨證思想과 그 病機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辨證思想으로는 脈을 중시하였는데,

如三指之下 浮診得六數七極者 熱實於表 當瀉表宜麻黃湯, 如浮診得三遲二敗者 爲表虛也 當補其虛宜桂枝湯, 如中診得六數七極者 是中焦之熱實矣 調胃承氣湯瀉之, 中診得三遲二敗者 中焦虛也 當補之以建中湯 理中湯, 如沈診得六數七極者 下焦熱實 以大承氣湯瀉之, 沈診得三遲二敗者 下焦虛也 以薑附補陽之<sup>88)</sup>

라고 하여, 浮中沈 三部의 脈과 각 部位의 遲數으로 病의 部位와 虛實을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86) 宣明方論, 앞의 책, 778쪽.

87) 宣明方論, 앞의 책, 778쪽.

88) 張璧 : 雲岐子保命集論類要, 中醫歷代珍本集成 十五卷, 上海三聯書店, 1990. 1-2쪽.

치료에 임하여야 함을 중시하였다. 즉, 浮脈으로 表證을 診斷하고 中脈으로 中焦를 診斷하고 沈脈으로 下焦를 診斷하는데, 數하면 實證, 遲하면 虛證으로 보고 그에 따라 치료하였다.

그리고 傷寒病의 病機에 관하여,

其太陽者 標熱本寒 爲太陽之表 表陽則熱 本者 膀胱之裏 主水故寒 脈浮爲在表 故太陽經病 身熱惡寒 頭痛項強腰痛 汎治太陽不可利小便 不可妄下利小便者 熱傳於裏而爲血證 下之則變爲結胸 此太陽經病所禁也 若傳於本者 可利小便 本爲膀胱有熱 小便赤澀 何禁也 太陽中風 風傷衛 衛氣虛而脈浮 身熱自汗惡風宜桂枝湯補之 表虛故也<sup>89)</sup>

其陽明經 標熱本實 標陽則熱 本於胃 胃者水穀之海 故本實 其從標則浮而長 從本則沈而實 陽明爲肌肉之本 標病身熱蒸蒸而不惡寒 本實胃中燥鼻乾日疼凡而熱 陽明禁發汗 在本者不禁下 發之則變黃證 太陽主表 榮衛是也 榮衛之下肌肉屬陽明 二陽併病 葛根湯主之 衛者桂枝 榮者麻黃 榮衛之中 麻黃桂枝各半湯 榮衛之下肌肉之分者 葛根湯又名解肌湯<sup>90)</sup>

라고 하여, 藏府와 經絡의 標本관계로 病의 部位와 性質 및 治法을 설명하고 있다.

張璧의 이러한 사상은 《保命集》에서 傷寒病의 病機를 標本과 經絡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劉完素는 傷寒病을 모두 熱病으로 인식하여 寒涼한 藥物을 사용하여 치료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表證, 半表半裏證, 裏證으로 크게 구분

하여 辨證施治하였는데, 劉完素의 이러한 사상과 張璧의 사상을 비교해 보면, 張璧의 醫學思想에서 傷寒病의 部位와 虛實에 따른 辨證論治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져 醫學이 한층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保命集》〈本草論 第九〉, 〈藥略 第三十二〉의 考察

#### (1) 《保命集》〈本草論 第九〉의 考察

《保命集》에는,

…是以 治病之本 須明氣味之厚薄, 七方十劑之法也, 方有七 劑有十 故方不七 不足以盡方之變 劑不十 不足以盡劑之用 方不對病 非方也 劑不觸疾 非劑也<sup>91)</sup>

라고 하여, 氣味の 厚薄과 七方十劑의 法을 알아야 한다고 하고, 특히 七方과 十劑를 중시하였다. 氣味の 厚薄에 대한 내용은 《素問·至真要大論》의 내용과 王冰의 注를 그대로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著者の 독특한 의견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七方十劑에 대하여는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緩方之說 有五 甘以緩之 爲緩方者 爲糖密甘草之類 取其戀膈也 有丸以緩之 爲緩方者 皆丸之比湯散 藥力宣行 遲故也 有品味群衆之緩方者 皆藥味衆多 各不能勝其性也 有無毒之緩方者 皆藥性無毒 則功自緩也 有氣味俱薄之緩方者 藥氣味薄則當補於上 比至其下 藥力既已衰 爲補上治上之法也<sup>92)</sup>

89) 張璧 : 앞의 책, 6쪽.

90) 張璧 : 앞의 책, 22쪽.

91) 保命集, 앞의 책, 24쪽.

92) 保命集, 앞의 책, 25쪽.

宣者 宣鬱鬱而不散爲壅 必宣劑以散之 如痞滿不通之類 是也 本草曰 宣可去壅 必宣劑以散之 如薑橘之屬 攻其裏 則宣者上也 泄者下也 涌劑 則瓜蒂梔豉之類 是也 發汗通表亦可<sup>93)</sup>

이러한 점으로 보아 《保命集》의 著者는 本草와 方劑에 關하여 七方과 十劑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또한 깊이 研究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著者는 氣味論이나 十劑說 이외의 방법으로 藥物 사용의 근거와 分類를 설명하고 있는데, 곧 “有因其性而爲用者, 有因其小乘爲制者, 有氣同則相求者, 有氣相剋則相制者, 有氣餘而補不足者, 有氣相感則以意使者, 有質同而性異者, 有名異而實同者”라 하였다. 그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有因其性而爲用者 : 蛇之性 竄而引藥 蟬之性 脫而退翳 蟲飲血而用 以治其血 鼠善穿而用以治其漏

因其用而爲使者 : 弩牙速產 以機發而不括也 杵糠下噎 以杵築下也

有因其小乘爲制者 : 萍不浸水 可以勝酒 獨活不搖風 可以治其風

有氣同則相求者 : 麻木穀而治風 豆水穀而治水

有氣相剋則相制者 : 牛土畜 乳可以止渴疾 豕水畜 心可以鎮恍惚

有氣餘而補不足者 : 熊肉振羸 兔肝明視

有氣相感則以意使者 : 鯉之治水 鰲之利水

有質同而性異者 : 蜂蜜成於蜂 蜜溫而蜂寒 油本生於麻 麻溫而油寒

有名異而實同者 : 藤蕪生於芎藭 蓬蘽生於覆盆

93) 保命集, 앞의 책, 25쪽.

所以如此之類 不可勝數<sup>94)</sup>

그리고,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까닭에 대하여,

故天地賦形 不離陰陽 形色自然 皆有法象 毛羽之類 生於陽而屬於陰 鱗介之類 生於陰而屬於陽 空青法木 色青而主肝 丹砂法火 色赤而主心 雲母法金 色白而主肺 磁石法水 色黑而主腎 黃石脂法土 色黃而主脾 故觸類而長之 莫不有自然之理也<sup>95)</sup>

라고 하여, 모든 사물에는 자연이 부여한 法象이 있으므로 이것을 잘 궁리하면 매 사물의 성질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2) 〈藥略 第三十二〉의 考察

著者는 《保命集》의 마지막편에 常用藥物의 效能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 一例는 아래와 같다.

羌活 治肢節痛 陰經風藥也

麻黃 發太陽 陰經寒

黃芩 瀉肝氣,

知母 泄腎火 助陰

石膏 瀉肺火 是陽明大涼藥

苦葶藶 瀉肺火

黃連 泄心火

芍藥 止脾痛 安太陰

白茯苓 止渴 利小便 太陰經藥

94) 保命集, 앞의 책, 27쪽.

95) 保命集, 앞의 책, 27쪽.

柴胡 治少陽厥陰 寒熱往來  
 白芷 治正陽明頭痛,  
 川芎 太陽頭痛  
 細辛 少陰頭痛不足  
 地黃 補腎真陰不足 臍下痛  
 從容 益陽道 及命門火衰  
 升麻 陽明經和解藥  
 澤瀉 治少陰 不渴而小便不利 及膀胱中有留<sup>96)</sup>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약물의 主治를 요약해 놓았다. 이러한 간단한 내용중에서 “陰經風藥”, “發太陽 陰經寒”, “太陰經藥”, “治少陽厥陰”, “瀉肝氣”, “瀉肺火”, “陽明經和解藥”, “治少陰” 등의 記述이 보이는데, 이러한 記述을 통하여 약물의 歸經과 引經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藥物의 形, 色, 性, 味, 體를 중심으로 약물의 특징을 圖式化하였는데,

假 眞 形 金 木 水 火 土  
 淺 深 色 青 赤 黃 白 黑  
 緩 急 性 寒 熱 溫 涼 平  
 薄 厚 味 辛 酸 鹹 苦 甘  
 枯 潤 體 虛 實 輕 重 中

輕枯 虛薄 緩淺 假宜上 厚重 實潤 深眞 急宜下  
 其中平者宜中 餘形色性味 皆隨臟腑所宜 此處方用藥之大概耳 知者誠用心 則思過半矣<sup>97)</sup>

라고 하여, 藥物의 形, 色, 性, 味, 體의 특징을

96) 保命集, 앞의 책, 96쪽.

97) 保命集, 앞의 책, 96쪽.

살펴 약물의 作用部位가 上部인가, 中部인가, 下部인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약물의 특징을 알고 處方을 사용하여야 病變部位를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藥物의 작용부위에 대한 설명으로 歸經說이 나오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3) 〈本草論 第九〉과 〈藥略 第三十二〉의 종합

《保命集》 〈本草論〉에서는 七方과 十劑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七方과 十劑에 대한 설명은 劉完素와 張元素의 著書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劉完素의 《原病式》, 《宣明方論》 등에 本草, 方劑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張元素의 《醫學啓源》에도 十劑에 대한 설명은 없고, 七方に 대한 설명은 있으나, 단지 《內經》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七方과 十劑에 대한 설명은 두 인물의 醫學思想을 전수받은 張從正과 李杲의 著書에서 볼 수 있는데, 張從正은 《儒門事親》에서 七方과 十劑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며, 李杲는 《醫學發明》에서 十劑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러나, 張從正의 七方に 대한 설명은 《保命集》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지만, 十劑에 대한 설명은 《保命集》과 매우 다르며, 李杲는 十劑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있는데, 《保命集》의 설명과는 매우 다르다.

〈藥略〉에서는 일부 약물의 작용과 작용부위를 간단히 기재하고 있는데, 그 主治에 대한 설명은 《醫學啓源》 上卷의 「隨證治病用藥」과 下卷의 「去藏府之火」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일부 약물의 작용부위 등에 대한 설명은 下卷의 「各經引用」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藥略〉 후반부에 藥物의 形, 色, 性,

味, 體 각각에 대하여 陰陽五行論에 입각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藥物의 形, 色, 性, 味, 體의 특징을 살펴 藥物의 작용부위가 上部인가, 中部인가, 下部인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藥物의 특징을 알고 處方을 사용하여야 病變部位를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藥物의 作用部位에 대한 설명으로 歸經說이 나오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本草論〉의 후반부에 모든 사물에는 자연이 부여한 '法象'이 있으므로 이것을 통하여 모든 藥物의 성질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張元素의 《醫學啓源》 下卷의 「藥類法象」에는 '法象'에 따라 '風升生', '熱浮長', '濕化成', '燥降收', '寒沈藏'으로 藥物을 분류하고 있는데, 《保命集》의 설명이 張元素 藥物分類法과 一脈相通함을 알 수 있다.

#### 4) 여러 病證論에 대한 고찰

##### (1) 〈中風論 第十〉의 考察

〈中風論〉에서는 中風에 대하여 "風本生於熱以熱爲本 以風爲標 凡言風者 熱也"라 하여 열이 그 근본이 된다고 하고, 中風證治에 있어서 유의 사항으로는 "凡覺中風 必先審六經之候 慎勿用大熱藥烏附之類 故陽劑剛勝積療原爲消狂瘡腫之屬 則天癸竭而榮涸 是以中風有此戒"라 하고, 또한 "中風之人 如小便不利 不可以藥利之 既得自汗則津液外亡 小便者少 若利之 使榮衛枯竭 無以制火 煩熱愈甚 當候熱退汗止小便自行也 兼此證乃陽明大忌利小便 須當識此"라고 하여, 中風에는 大熱한 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小便을 通利시키면 煩熱이 더욱 심해지므로 通利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내용은 《原病式》이나 《宣明方論》과 그 사상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治法에서는 "治須小汗 亦宜小下 多汗則虛其衛 多下則損其榮 汗下各得其宜 然後宜治在經 雖有汗下之戒 而有中藏中府之說 中府者宜汗之, 中藏者宜下之"라고 하여, 中藏證과 中府證을 구분하여 치료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각각의 辨證에서 中府證은 "其中府者 面加五色 有表證 脈浮而惡風惡寒 拘急不仁 或中身之後 或中身之前 或中身之側 皆曰中府也 其治多易"라 하고, 그 처방으로 "中府者 先以加減續命湯 隨證發其表"라 하였으며, 中藏證은 "中藏者 唇吻不收 舌不轉而失音 鼻不聞香臭 耳聾而眼瞤 大小便秘結 皆曰中藏也 其治多難"하다고 하고, 그 治法으로는 "若忽中藏者 則大便多秘澀 宜以三化湯 通其滯"라 하였다. 그리고, "大抵 中府者 多著四肢 中藏者 多滯九竅 雖中府者 多兼中藏之證 至於舌強失音 久服大藥 能自愈也"라고 총괄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醫學發明》에서 李東垣이 밝혀놓은 내용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中風의 豫防法으로 "故中風者 俱有先兆之證 凡人如覺大拇指及次指 麻木不仁 或手足不用 或肌肉蠕動者 三年內必有大風之至 經曰 肌肉蠕動 命曰微風 宜先服八風散 愈風湯 天麻丸 各一料爲效 故手大指次指 手太陰陽明經 風多著此經也 先服祛風滌熱之劑 辛涼之藥 治內外之邪 是以 聖人治未病 不治已病"라고 하여 豫防을 중시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愈風湯, 天麻丸 등은 張元素의 대표적인 創方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中風論에서 小續命湯을 중심으로 六經에 따라 加減하여 치료하는 여섯가지의 加減續命湯이 있는데, 이러한 여섯가지의 加減法은 張元素

의 秘法으로 알려져 있다.<sup>98)</sup>

이러한 정황과 李聰甫·劉炳凡이 “完素의 著作인 《宣明論方·風論》의 스물네개 處方중에는 防風通聖散을 제외하고는 本書와 같은 것이 없다.”<sup>99)</sup>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본다면 “본서에 劉完素와 張元素 두 醫家の 處方과 理論이 섞여서 하나를 이루었다.”<sup>100)</sup>는 것을 알 수 있다.

## (2) 《熱論 第十四》의 考察

《保命集》에서는 熱病을

有表而熱者 謂之表熱也 無表而熱者 謂之裏熱也  
有暴發而爲熱者 乃久不宣通而致也 有服溫藥過劑  
而爲熱者 有惡寒戰慄而熱者 蓋諸熱之屬者 心火之  
象也<sup>101)</sup>

라고 分類하였는데, 이와같이 熱의 部位로 辨證하는 내용은 劉完素의 醫學思想과 一脈相通한다.

그러나, 그 證治에 있어서는

病有暴熱者 病在心肺 有積熱者 病在肝腎 暴熱

98) 《醫學正傳》에는 “張易水가 加減法을 東垣에게 傳授하였다”라고 하였다.

虞搏 著：醫學正傳，成輔社，1986. 29쪽.

99) 李聰甫·劉炳凡是 《金元四大家學術思想研究》에서, “《家珍》에 있는 일곱 개의 處方은 전부 本書에 있는 열 개의 處方중에 있으나, 完素의 著作인 《宣明論方·風論》의 스물네개 處方중에는 防風通聖散을 제외하면 본서와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宣明論方·風論》의 논술내용은 中風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며, 《宣明論方》은 完素가 早期에 저작하였고, 本書는 晚期에 저작하였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조만년에 사용한 處方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李聰甫·劉炳凡：앞의 책, 3쪽.

100) 李聰甫·劉炳凡：앞의 책, 3쪽.

101) 保命集, 앞의 책, 45쪽.

者 宜局方中 雄黃解毒丸, 積熱者 國防中 妙香丸, 暴熱上喘者 病在心肺 謂之高喘 木香金鈴子散, 上焦熱而煩者 牛黃散, 藏府秘者 大黃牽牛散, 上焦熱無他證者 桔梗湯, 有虛熱 不能食而熱者 脾虛也 宜以厚朴白朮陳皮之類治之, 有實熱 能食而熱者 胃實也 宜以梔子黃芩湯 或三黃丸之類 治之, 鬱金柴胡之類 亦是也, 有病久憔悴 發熱盜汗 謂五藏齊損 此熱勞骨蒸病也 瘦弱虛煩 腸癖下血 皆蒸勞也 宜養血益陰 熱自能退 當歸生地黃 或錢氏 地黃丸是也<sup>102)</sup>

라고 하여, 上焦熱, 中焦熱, 下焦熱 등 三焦로 辨證하여 熱病을 치료하고 있고, 《熱論》의 뒷부분에는,

治表熱 惡寒而渴 白虎湯也, 膚如火燎而熱 以手取之 不甚熱 爲肺熱也 目白睛赤 煩躁 或引飲 獨黃芩一味主之水煎, 兩脇下肌熱 脈浮弦者 柴胡飲子主之, 兩脇肋熱 或一身盡熱者 或日哺肌熱者 皆爲血熱也 四順飲子主之, 夜發熱 主行陰乃血熱也 四順桃仁承氣選用 當視其腹痛血刺痛 與有表入裏 腹中轉失氣 燥結之異 晝則明了 夜則譫語 四順飲子證與桃仁承氣相似 不可不辨也, 發熱雖無脇熱 亦爲柴胡證 晝則行陽二十五度 氣藥也 大抵則柴胡, 夜則行陰二十五度 血藥也 大抵四順飲子<sup>103)</sup>

라고 하여, 氣分熱과 血分熱로 나누어 證治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醫學啓源》 上卷의 「三焦手少陽爲父氣」와 《衛生寶鑑》 六卷의 「瀉熱門」에 熱病을 上中下 三焦의 熱로 나누어 辨證施治하는 내용이나 氣分熱, 血分熱로 나누어 辨證施治하

102) 保命集, 앞의 책, 46쪽.

103) 保命集, 앞의 책, 48쪽.

는 내용과 일치한다.<sup>104)</sup>

### (3) 病證論의 종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風論〉이나 〈熱論〉 두 편의 내용속에는 劉完素와 張元素의 醫學思想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편에서 이러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處方의 加減法중에,

春倍防風羌活 夏倍黃芩知母 季夏雨淫 倍白朮白芷 秋加桂五錢 冬桂八錢 或一兩<sup>105)</sup> (解利傷寒論中 大白朮湯의 가감법)

治處暑以後 秋冬間 藏府下利 大效 春夏再加黃連二兩 秋冬再加厚朴二兩 計四兩<sup>106)</sup> (吐論中 厚朴丸의 가감법)

諸瀉痢久不止 或暴下者 皆太陰受病 故不可離于芍藥 藥不受濕 不能下痢 故須用白朮 是以聖人立法 若四時下痢 於芍藥白朮內 春加防風 夏加黃芩 秋加厚朴 冬加桂附<sup>107)</sup> (瀉論中の 설명)

라고 하여, 四時에 따른 加減法을 강조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四時에 따라 藥物을 加減하여 사용하는 法을 체계화한 李東垣의 思想과 일치한다.<sup>108)</sup>

104) 張元素 著 : 앞의 책, 28쪽.

羅天益 著 : 衛生寶鑑, 金剛出版社, 1981. 59-63쪽.

105) 保命集, 앞의 책, 45쪽.

106) 保命集, 앞의 책, 55쪽.

107) 保命集, 앞의 책, 60쪽.

108) 四時에 따른 약물의 加減法은 《醫學發明》중 「四時用藥加減法」에서 이득원이 설명한 내용과 일치한다. (李杲 著 : 앞의 책, 17-21쪽 참조)

본인은 앞에서 張璧이나 李東垣, 羅天益 등 易水學派 계열의 書籍에서 보이는 내용을 모두 張元素의 醫學思想으로 간주하였다. 易水學派의 醫學特徵이 張元素로부터 나온 것이

기 때문이다.

### Ⅲ. 考察 및 結論

李時珍은 《保命集》을 張元素가 지었으며 一名 《活法機要》라 한다고 하여, 劉完素의 著作으로 알려진 《保命集》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保命集》의 著者에 관한 論爭을 불러 일으켰다.

본인이 《活法機要》를 考察한 결과, 《活法機要》는 李東垣이 撰한 것이며, 대부분 《保命集》을 요약하여 놓아 《保命集》과 그 내용이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保命集》과 내용이 유사한 까닭에 《醫學啓源》을 비롯하여 《醫學發明》이나 明代의 서적들에서도 《活法機要》와 《保命集》을 혼동하여 사용하였으며, 李時珍도 이러한 영향으로 《活法機要》를 《保命集》의 다른 이름으로 착각하였다고 생각된다.

《保命集》의 著者에 관한 論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張元素가 著者라는 것으로 李時珍의 《本草綱目》을 비롯하여 四庫全書의 《保命集·提要》에서 주장하였다. 둘째, 劉完素가 틀림없다는 것으로, 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 李聰甫·劉炳凡 編著의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嚴世蓁 主編의 《中國醫籍通考》에서 주장하였다. 셋째, 後人이 두 인물의 遺書를 編輯하여 만들었다는 것으로 嚴世蓁 主編의 《中醫學術史》에서 주장하였다.

본인이 《保命集》의 내용을 고찰하여 본 결과, 劉完素와 張元素의 醫學思想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편에 걸쳐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保命集》의 著者에 대한 李時珍을 비롯한 역대 제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다고 생각된다.

李時珍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保命集》을 張元素가 지었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李時珍은 《保命集》의 내용중에 張元素의 醫學思想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만을 보고 그렇게 주장한 것 같다.

丹波元胤은 《保命集》의 내용이 《原病式》이나 《宣明論方》 등의 내용과 表裏가 된다고 하고, 張元素의 醫學思想을 받아들인 李東垣의 著作을 살펴볼 때, 《保命集》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保命集》을 劉完素가 지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嚴世蓁 등도 《中國醫籍通考》에서 《保命集》과 《原病式》, 《三消論》 등을 서로 비교해 보면, 醫理가 서로 부합되고 一貫되어, 張氏의 學問이나 經驗과 그 뜻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保命集》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張元素의 醫學思想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으므로 丹波元胤이나 嚴世蓁 등의 의견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李聰甫·劉炳凡은 실제로 《保命集》에 劉完素와 張元素의 醫學思想이 混在하고 있으나, 張元素가 劉完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두 인물의 醫學思想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모두 劉完素의 醫學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保命集》에서 養生을 중시한 점이 劉完素의 다른 著作과 상통하

므로 劉完素의 著作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嚴世蓼 등이 《中國醫籍通考》에서 지적했듯이 두 인물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또한 각자의 學問의 成就를 이루어 後世에 서로 다른 學派의 宗主가 되었으니,” 두 인물의 醫學思想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러한 반론은 《中醫學術史》에서 “張元素가 劉完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두 인물의 醫學思想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後人이 두 인물의 遺書를 編輯하여 《保命集》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본인은 《保命集》의 내용을 통한 考察과 《保命集》의 著者에 관한 여러 의견의 문제점들을 통하여 하나의 假定을 하였다. 그것은 劉完素와 張元素의 醫學思想을 모두 익힌 다른 인물이 두 인물의 醫學思想을 종합하여 《保命集》을 지었으리라는 것이다.

두 인물은 서로 다른 學派의 宗主가 될만큼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각자의 學問의 成就가 다르다. 劉完素나 張元素 중 어느 한 사람이 《保命集》을 썼다면 지금 살펴본 《保命集》처럼 자신의 醫學思想과는 구별되는 상대의 思想이 매 편마다 녹아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保命集》은 두 인물의 醫學思想을 모두 익힌 다른 인물이 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왜 두 인물의 醫學思想을 합하여 《保命集》을 지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두 인물은 前代에 비해 훨씬 발전한 새로운 醫學理論을 제시하여 河間學派와 易水學派의 宗主가 되었으며, 이들은 後代醫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두 인물의 醫學思想이 前代에 비하여 발전된 醫學理論임에는 틀림없으나, 너무 주관적이고 편벽된 경향으로 인해 많은 비판의 소지가 있었으며, 실제로 후대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sup>109)</sup>

《保命集》의 著者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되고 완전한 醫學理論을 담기 위하여, 두 인물의 醫學思想의 장점만을 취하여 《保命集》을 지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인물의 醫學思想을 한데 합하여 《保命集》을 짓고 나서 著者를 밝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楊威가 《保命集》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保命集》의 著者가 劉完素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당시에 劉完素가 張元素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著者로 劉完素를 내세웠을 것이다.

《中醫學術史》에서도 두 인물의 醫學思想이 서로 유사하므로 後人이 두 인물의 遺作을 합하여 《保命集》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본인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그 근거는 앞에서 밝힌 대로 두 인물의 醫學思想이 서로 다르고, 매 편마다 두 인물의 醫學思想이 녹아있으며, 또한 《保命集》의 편제가 一目了然하고, 앞뒤 내용이 서로 일치하므로<sup>110)</sup>,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두 인물의 遺

109) 이들의 醫學理論에 대한 批判은 明代 張介賓이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논문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金重漢: 張介賓의 醫學思想과 理論批判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29-36쪽.

110) 《保命集》의 〈中風論 第十〉의 내용중에 服用法을 설명하면서, 厚朴丸과 함께 服用하여야 한다고 한 후에 “厚朴丸方在 吐論中”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로 〈吐論 第十七〉의 내용중에 厚朴丸이 있다.

작을 합하여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이상과 같이, 後人이 보다 발전되고 완전한 醫學理論을 담기 위하여 劉完素와 張元素의 醫學思想의 편벽된 점을 보완하고, 그 장점만을 취하여 《保命集》을 著作하였으리라는 가정을 통해 볼 때, 《保命集》의 著者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제가들의 치우친 주장을 바로 잡아서 각 주장마다 제기되었던 의문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 IV. 參考文獻

1. 甄志亞 主編：中國醫學史，一中社，1992年 影印本.
2. 裘沛然 外 編著：中醫歷代各家學說，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4.
3. 金容辰, 尹暢烈：張元素의 生涯와 醫學思想,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4, 1990.
4. 羅天益 著：衛生寶鑑，金剛出版社，1981.
5. 丹波元胤 著：中國醫籍考，人民衛生出版社，1983.
6. 白茅：張元素生年小考，中華醫史雜誌，1993年，제 23권，제 3기.
7. 嚴世蓀 主編：中國醫籍通考(第一卷)，上海中醫學院出版社，1990.
8. 嚴世蓀 主編：中醫學術史，一中社，1991年 影印本.
9. 虞搏 著：醫學正傳，成輔社，1986.
10. 劉時覺：丹溪著述辨偽，中華醫史雜誌，1993年，제 23권，제 2기.
11. 劉完素 著：病機氣宜保命集，欽定四庫全書本 醫家類13，大星文化社，1995.
12. 劉完素 著：宣明方論，欽定四庫全書本 醫家類12，大星文化社，1995.
13. 劉完素 著：素問元氣原病式，欽定四庫全書本 醫家類12，大星文化社，1995.
14. 劉河間 編著，吳學勉 校：劉河間傷寒六書，成輔社，1976.
15. 李杲 著：醫學發明 活法機要，醫聖堂，影印本，1987.
16. 李時珍 著：本草綱目，欽定四庫全書本 醫家類40，大星文化社，1995.
17. 李總甫, 劉炳凡 編著：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之研究，人民衛生出版社，1983.
18. 張元素 編著：醫學啓源，人民衛生出版社，1978.
19.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歷代中醫珍本集成 제15권；雲岐子保命集論類要，上海三聯書店，1989.
20.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歷代中醫珍本集成 제15권；活法機要，上海三聯書店，1989.
21. 陳大舜 外 編著：中醫各家學說，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5.
22.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1985.
23. 洪元植 編著：精校黃帝內經素問，東洋醫學研究所 出版部，1985.
24. 洪元植 編著：中國醫學史，東洋醫學研究院，1987.

## ABSTRACT

### A study on the writer of Bao Ming Shi(保命集)

Jo Dae-jin

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

(Supervised by prof. Park Chan-kuk)

Lee Shi Zhen(李時珍) raised a question in argument on the writer of Bao Ming Shi(保命集), which had been believed to be written by Liu Wan Su(劉完素), arguing that Bao Ming Shi(保命集), also called Huo Fa Ji Yao(活法機要), was written by Zhang Yuan Su(張元素).

There were three representative arguments on the writer of Bao Ming Shi(保命集). One suggested that it was written by Zhang Yuan Su(張元素) while the other argued that it was definitely written by Liu Wan Su(劉完素). And another suggested that it was edited by posterity by combining the works of the former two writers.

After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Bao Ming Shi(保命集) has Liu Wan Su(劉完素) and Zhang Yuan Su(張元素)'s unique medical thoughts in many descriptions resulting in controversial dispute.

Through these arguments, a new hypothesis has been made that the third person who had studied Liu Wan Su(劉完素) and Zhang Yuan Su(張元素)'s medical thoughts wrote Bao Ming Shi(保命集).

Liu Wan Su(劉完素) and Zhang Yuan Su(張元素) were quite different in medical thoughts and their works and they found different school, respectively. Therefore, if Bao Ming Shi(保命集) was written by Liu Wan Su(劉完素) or Zhang Yuan Su(張元素), it is impossible that Bao Ming Shi(保命集) has the two medical thoughts in many descriptions. So, it is regarded reasonable to argue that the person who had acquainted with the two medical thoughts wrote this book.

Then another question can be raised : why the person wrote Bao Ming Shi(保命集), which integrated the two medical thoughts and. The answer is as follows.

Liu Wan Su(劉完素) and Zhang Yuan Su(張元素) became the founders of He Jian(河間) school and Yi Shui(易水) school, respectively, which have considerably affected later generations, suggesting advanced medical theory. The medical thoughts suggested by the two were sure advanced compared with the former generation, but

subjective and biased enough to be criticized.

So, it is thought that the third person wrote Bao Ming Shi(保命集) to recover those demerits and to describe more advanced medical theory.

Zhongyi Xueshushi(中醫學術史) suggests that posterity edited Bao Ming Shi(保命集) by combining Liu Wan Su(劉完素) and Zhang Yuan Su(張元素)'s works, which is different from my suggestment.

In above description, it is said that the two medical thoughts were quite different, but Bao Ming Shi(保命集) has well-understood medical thoughts containing the two medical thoughts in chapter to chapter, and well coincides from cover to cover, which shows that it is written by one person not edited by posterity.

My hypothesis can admit other arguments on the writer of Bao Ming Shi(保命集), recover the bias of those argument and solve the questions raised in other arguments.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person, who was well acquainted with Liu Wan Su(劉完素) and Zhang Yuan Su(張元素)'s medical thoughts, wrote Bao Ming Shi(保命集) to describe more advanced and complete medical theory by amending the bias and taking the merits of the two medical thoughts.